

제4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4

“한국인의 기부지수 발표 및 선진적인 모금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모금”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Giving Korea 2004"



National Survey on Giving in Korea and
Delivering Ethics and Efficiency in Fundraising

GIVING KOREA 2004

GIVING INDEX

2004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

【 2004. 06. ~ 07. 】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1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1
3. 표본추출방법	2
4. 응답자 특성표	3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6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 200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7
1-1.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8
1-2.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인지 경로	10
1-3. 2003년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	12
1-4. 2003년 자원봉사활동 시간	13
1-5. 2003년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시간	16
2. 2003년 기부 참여 여부	17
2-1. 2003년 기부처	18
2-2. 2003년 기부처 인지 경로	20
2-3. 2003년 기부 방법	21
2-4. 2003년 기부 정기성 여부	22
2-5. 2003년 기부 금액	23
2-6. 2003년 종교기관 기부 참여율 및 기부 금액	28
3. 기부의 이유	29
4.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30

5. 기부금의 기부처 운영 및 행정 비용 적정 범위	32
6. 기부하지 않은 이유(비기부자 한정)	34
7.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비기부자 한정)	36
8.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37
9. 자선/모금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39
10.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40
11. 성장기 경험	42
12. 시설/기관/단체별 신뢰도	43
13. 2003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44
14. 2003년 배우자 기부 금액	46

■ [부록] 조사 설문지

1. 조사의 목적

2003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모색 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조 사 대 상	■ 전국(제주 제외)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표 본 수	■ 1,011명
표 본 오 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08\%$ 포인트
조 사 방 법	■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표 본 추 출	■ 1단계 : 다단계 지역추출법 - 조사지점 선정 ■ 2단계 : 할당표본추출법 - 응답자 선정 ☞ '3절. 표본추출방법'에서 별도 설명
조 사 기 간	■ 2004년 6월 17일(목) ~ 7월 3일(토)
조 사 기 관	■ (주)리서치 앤 리서치(R&R; 대표 노규형)

3. 표본추출방법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

■ 지역별 층화

- 전국을 7개 광역시와 8개 도(제주도 제외)로 나누고, 도는 다시 시, 읍, 면으로 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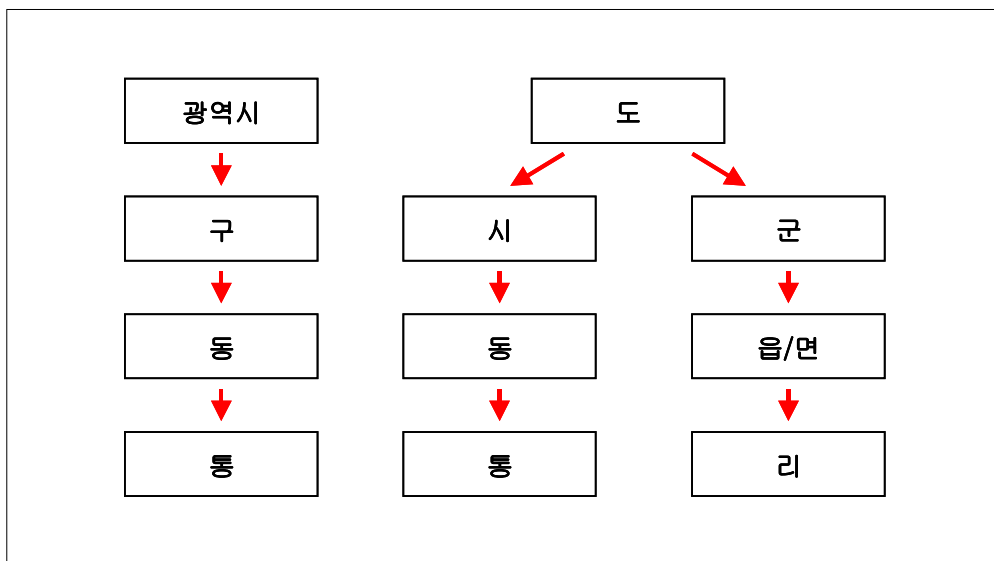
■ 인구수 비례 할당

- 층화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 지역 당 조사지점(sampling point)의 수 계산(조사지점당 10명 조사 원칙).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조사지점인 통/리를 무작위로 선정

☞ 이러한 과정은 R&R Sampler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짐



2단계 :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 최종 응답자는 조사지점에서 성별 · 연령대별 인구비례 층화할당을 통해 선정.

4.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
전 체		1,011	100.0%
성 별	남 자	498	49.3%
	여 자	513	50.7%
연 령	2 0 대	233	23.1%
	3 0 대	255	25.2%
	4 0 대	227	22.5%
	5 0 대 이 상	296	29.2%
학 력	중 졸 이 하	223	22.1%
	고 졸	448	44.3%
	대 재 이 상	340	33.6%
직 업	농 / 임 / 어 업	79	7.8%
	자 영 업	115	11.4%
	블 루 칼 라	181	17.9%
	화 이 트 칼 라	192	19.0%
	주 부	274	27.1%
	학 생	98	9.7%
	무 직 / 기 타	72	7.1%
거 주 지	서 울	224	22.1%
	인 천 / 경 기	254	25.1%
	부산/울산/경남	169	16.8%
	대 구 / 경 북	114	11.2%
	광 주 / 전 라	115	11.3%
	대 전 / 충 청	102	10.1%
	강 원	34	3.3%
거주지규모	대 도 시	487	48.2%
	중 소 도 시	387	38.3%
	군 지 역	137	13.5%

< 계 속 >

		사례수	%
전 체		1,011	100.0%
결 혼 상 태	미 혼	300	29.7%
	기 혼	626	61.9%
	이 혼 / 사 별	85	8.4%
종 교	불 교	245	24.2%
	기 독 교	220	21.7%
	천 주 교	87	8.6%
	없 음	460	45.5%
개 인 소 득	4 9 만 원 이 하	451	44.6%
	5 0 ~ 9 9 만 원	90	8.9%
	1 0 0 ~ 1 9 9 만 원	246	24.3%
	2 0 0 만 원 이 상	223	22.1%
가 구 소 득	9 9 만 원 이 하	97	9.6%
	1 0 0 ~ 1 9 9 만 원	260	25.7%
	2 0 0 ~ 2 9 9 만 원	334	33.0%
	3 0 0 만 원 이 상	316	31.2%
	모 름 / 무 응 답	4	0.4%
거 주 형 태	자 가	694	68.6%
	전 세	240	23.8%
	월 세 / 기 타	77	7.6%
가 구 원 수	1 명	157	15.5%
	2 명	194	19.2%
	3 명	211	20.9%
	4 명	314	31.1%
	5 명 이 상	135	13.4%

조사결과 요약

■ 2003년 기부

- ▶ 기부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4.3%로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나타남. 이는 2000년(57.0%), 2001년(48.0%)보다 상승한 수치임.
- ▶ 국민 1인당 종교기부를 제외한 기부 금액(물품포함)은 평균 57,859원으로 2001년(51,775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기부한 사람에 한정할 경우, ‘개인별’ 기부 금액은 90,101원으로 나타나, 2001년(각각 89,780원, 108,110원)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음.
- ▶ 한편, 기부자의 세금공제 혜택 인지도는 43.3%에 그쳤고, 인지자 중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한 경우는 15.0%에 불과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음.

■ 2003년 자원봉사활동

-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8%로 2000년(17.7%), 2001년(16.0%)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시간(종교 자원봉사 제외)은 7.38시간으로 2001년의 5.81시간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임.
- ▶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 한정하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종교 자원봉사 제외) 평균 시간은 44.7시간이었음. 이는 2001년(건수별: 31.2시간, 개인별: 36.2시간)보다 다소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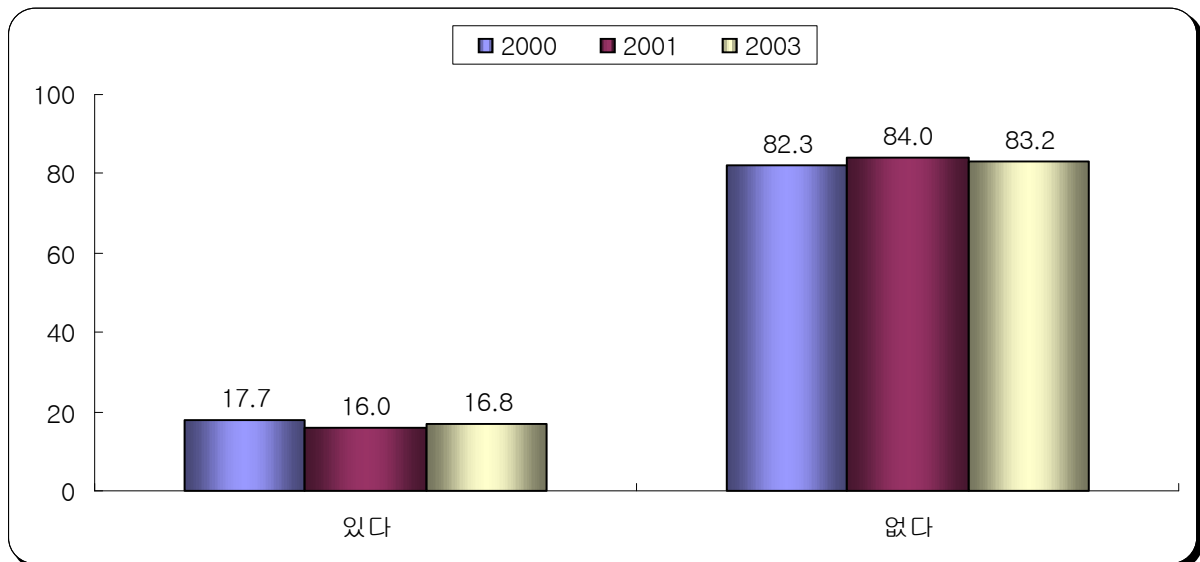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1. 200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문)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3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1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2003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참여한 적이) 있다’가 16.8%로 나타남.

- 2000년 17.7%, 2001년 16.0%, 2003년 16.8%로 연도별 증감이 거의 없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대(21.4%), 학생(28.7%), 대구/경북 거주자(27.6%), 중소도시 거주자(21.4%), 기독교(23.2%) 및 천주교(33.1%) 신자, 개인소득 49만원이하(20.2%), 가구소득 100만원대(20.8%) 및 300만원이상(21.1%), 거주형태 자가(1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없다’는 응답은 블루칼라(90.1%), 서울 거주자(89.0%), 대도시 거주자(86.4%), 결혼상태 이혼/사별(98.1%), 무신론자(89.6%), 가구소득 99만원이하(94.1%) 및 200만원대(87.4%), 거주형태 전세(88.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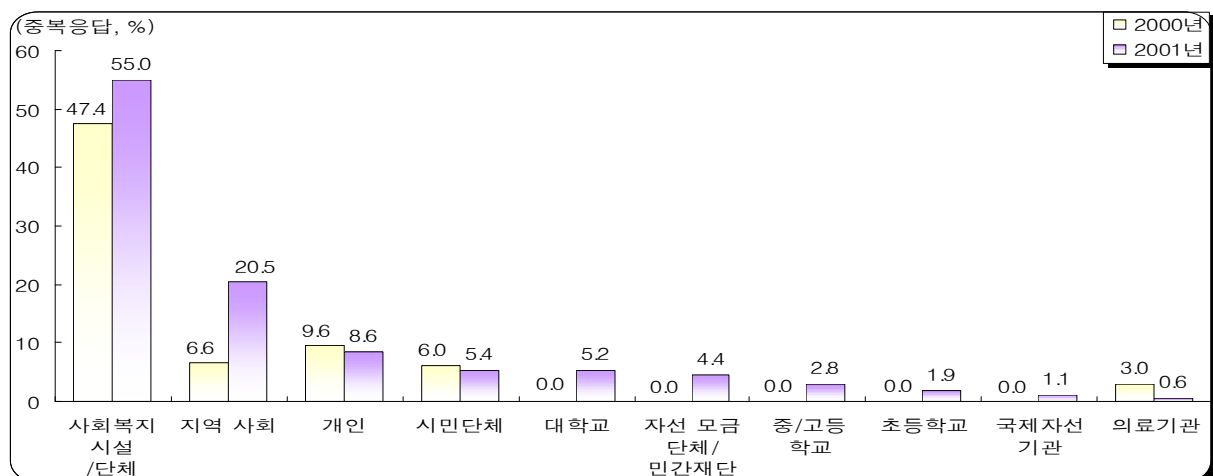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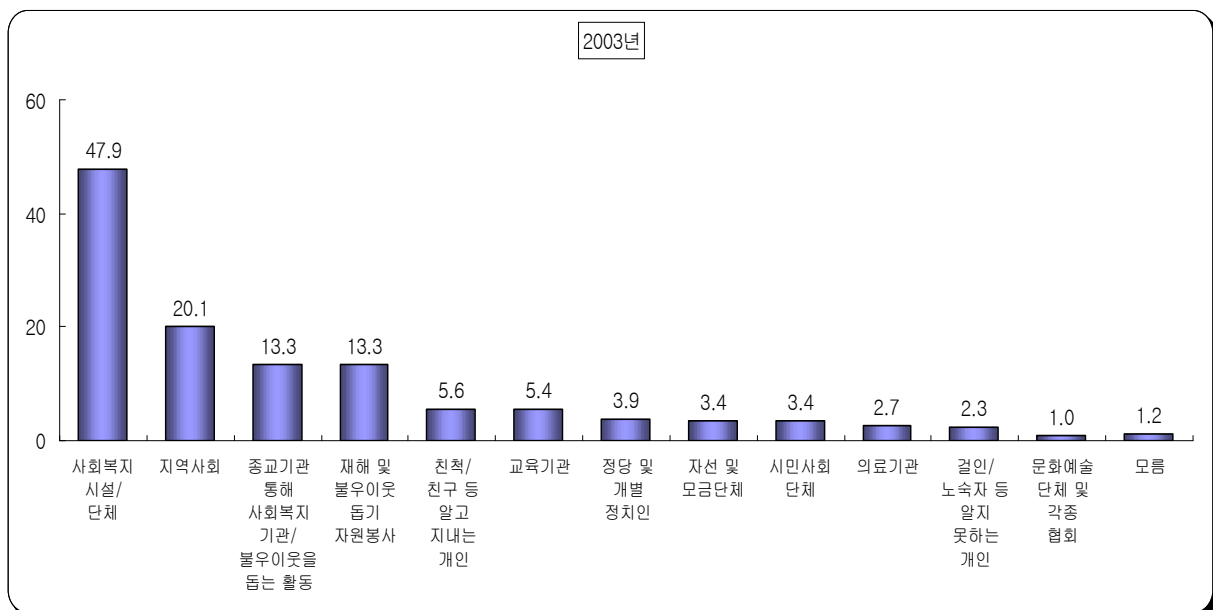
1-1.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3년 1월~12월)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보기카드 1에서 찾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 170명의 자원봉사활동 장소로는 ‘사회복지 시설/ 단체’(47.9%)가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20.1%)가 두 번째로 높았음(중복응답; n=170).

- 한편, ‘사회복지 시설/ 단체’는 2000년(47.4%)과 2001년(55.0%)에도 가장 높은 자원봉사 장소로 나타난 바 있음.

☞ [참고] 본조사의 설문은 회의를 통해 2002년 조사의 설문에서 다소 수정되었음. 이와 같이 수정된 설문항은 기존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 래프를 제시할 때 본조사 결과와 기존조사 결과를 각각 분리하여 제시함. 이는 본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항에 적용됨.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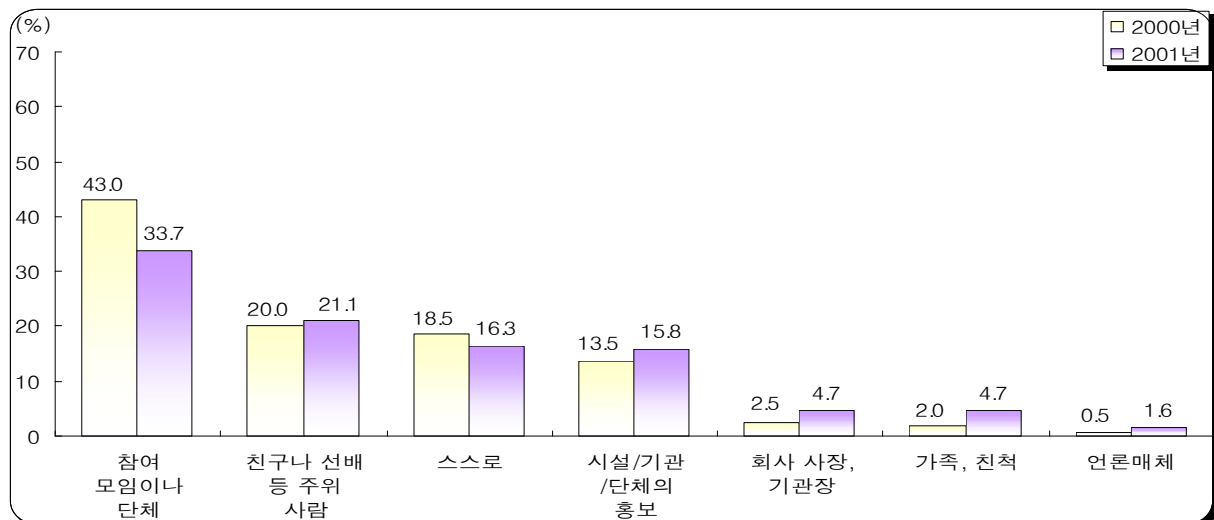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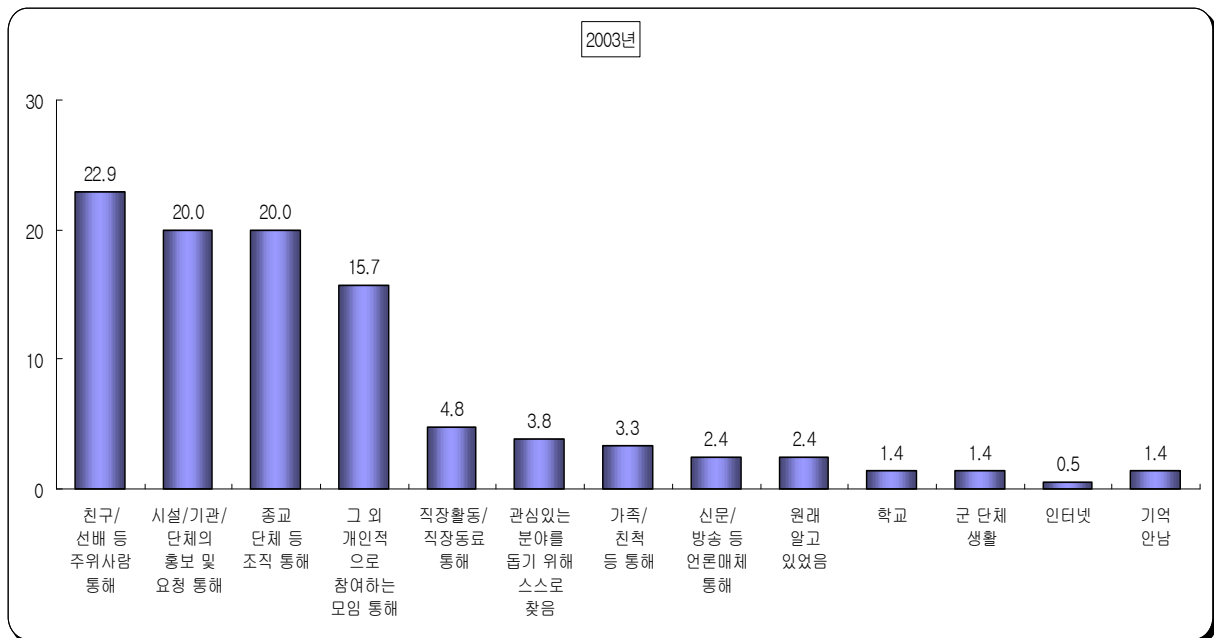
- ▷ '사회복지 시설/단체'는 20대(68.2%), 학생(75.1%), 미혼자(69.2%), 기독교 신자(63.2%), 가구소득 100만원대(6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역사회'는 40대(33.2%), 고졸 학력층(30.0%), 기혼자(27.9%), 불교신자(38.5%), 가구소득 99만원이하(56.4%) 및 200만원대(3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2. 2003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인지 경로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시요.

- ◎ 자원봉사활동 장소를 알게 된 경로로는 '친구나 선배 등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가 2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기관/단체의 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20.0%), '종교단체 등의 조직을 통해서'(20.0%) 등이 뒤를 이음 (response base; n=210).

☞ [참고] response base란 모르겠다,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응답이 나온 총 항목 수를 기준(분모)으로 하여 각각의 응답(분자)들을 나누어 계산함. 본 문항에서 응답 나온 총 항목 수는 210개임.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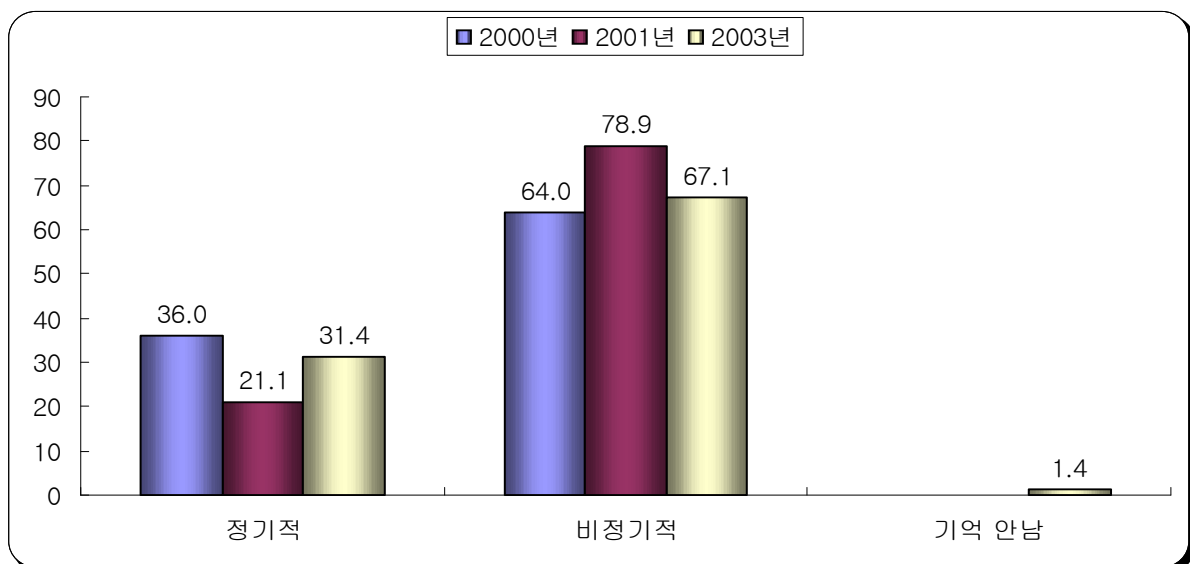
- ▷ '친구나 선배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20대(37.2%), 미혼자(3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3. 2003년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 여부를 묻은 결과, ‘정기적’이 31.4%로 나타남 (response base; n=210).

- 본 조사의 정기적 봉사 비율(31.4%)이 2001년 조사(21.1%)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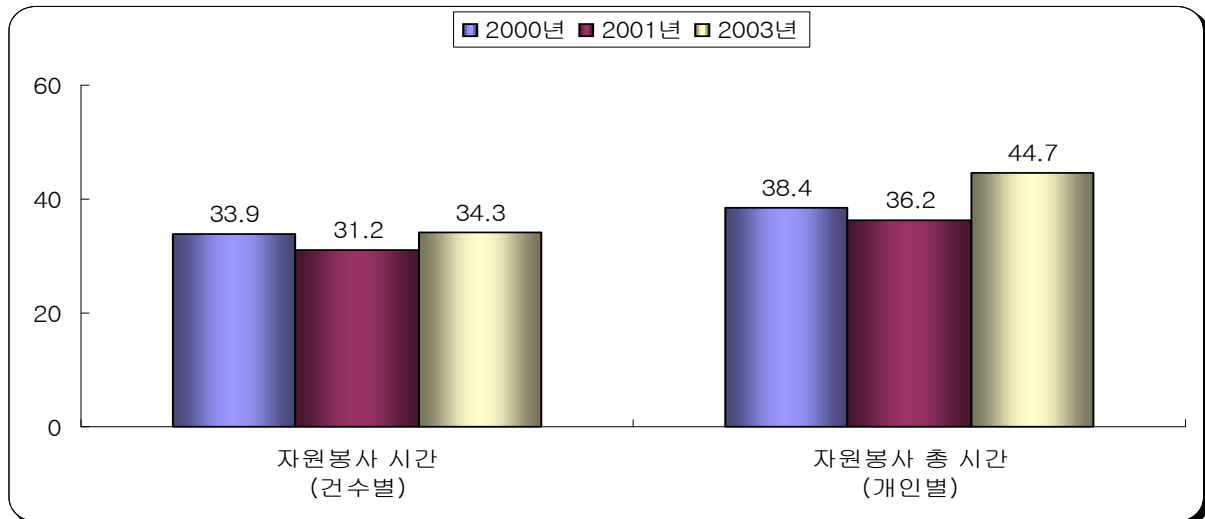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정기적’이라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40.9%), 대도시 거주자(45.6%), 개인소득 200만원이상(4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은 학생(87.1%), 중소도시 거주자(7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4. 2003년 자원봉사활동 시간

문) 작년 한 해 동안(200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 ◎ 참여자에 한정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건수별’ 평균시간은 “34.3시간”으로 2001년(31.2시간)보다 9.9% 증가하였고,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은 “44.7시간”으로 2001년(36.2시간)보다 23.5% 증가하였음.
-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종교자원봉사제제외)은 “7.38시간”으로 분석됨(2001년 : “5.81시간”). 종교자원봉사를 포함하면 연 평균 8.1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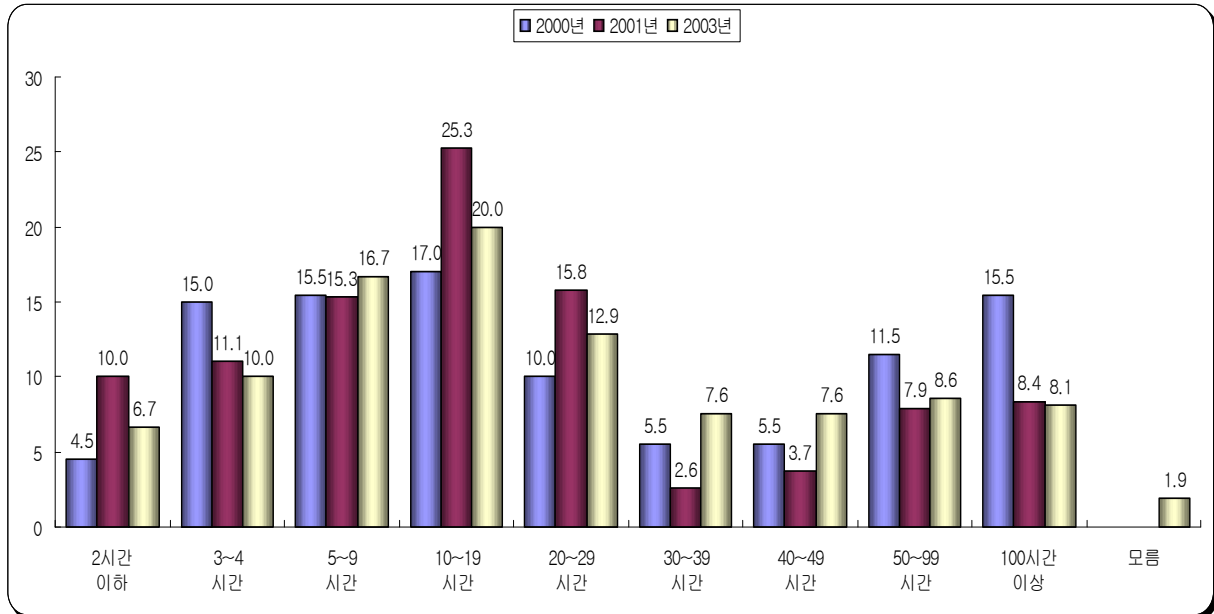


<그림>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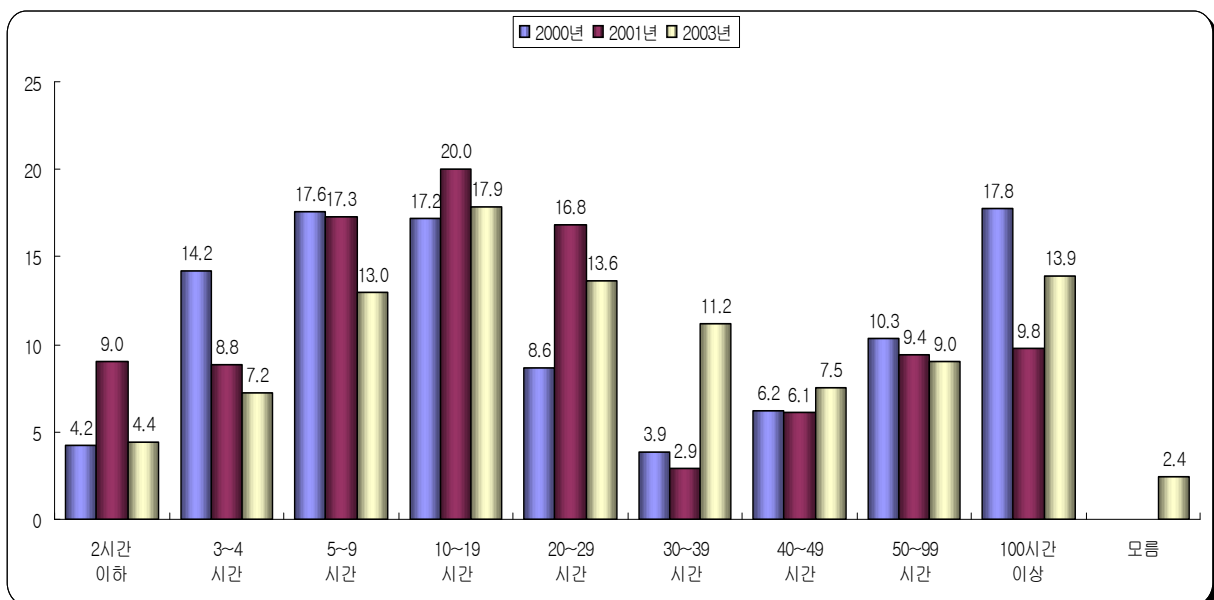
- ▷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30대(64.3시간), 중졸이하 학력층(65.4시간), 서울 거주자(64.5시간), 대도시 거주자(55.6시간), 결혼상태 기혼자(50.0시간)임.

- ◎ 한편, 건수별로는 '10~19시간'이 20.0%로 가장 높았고, '5~9시간'이 16.7%로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자원봉사활동 시간(건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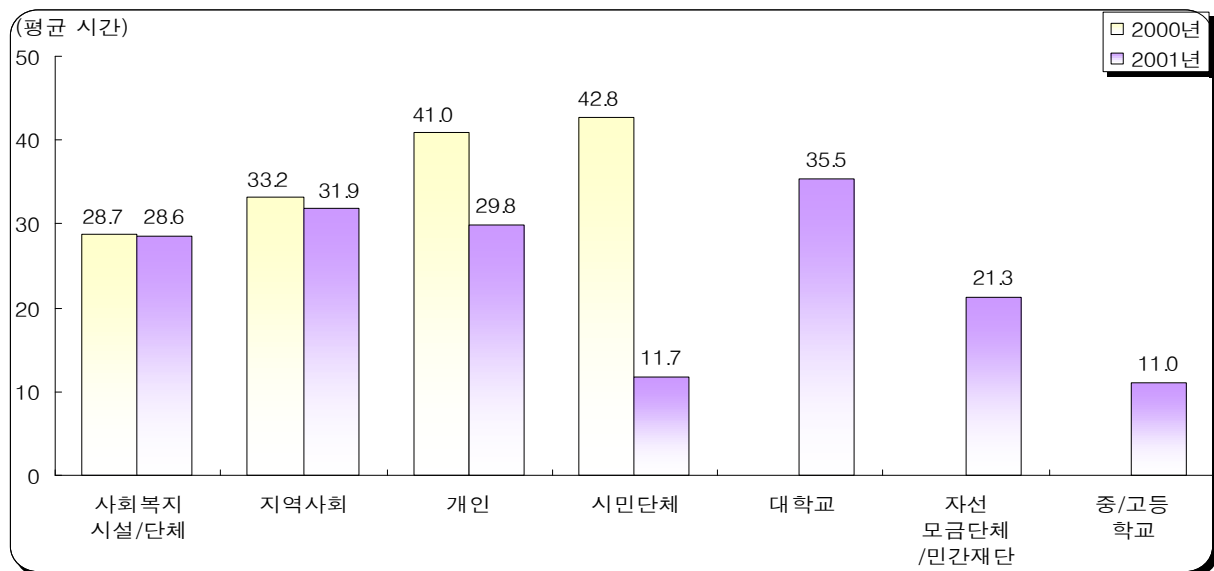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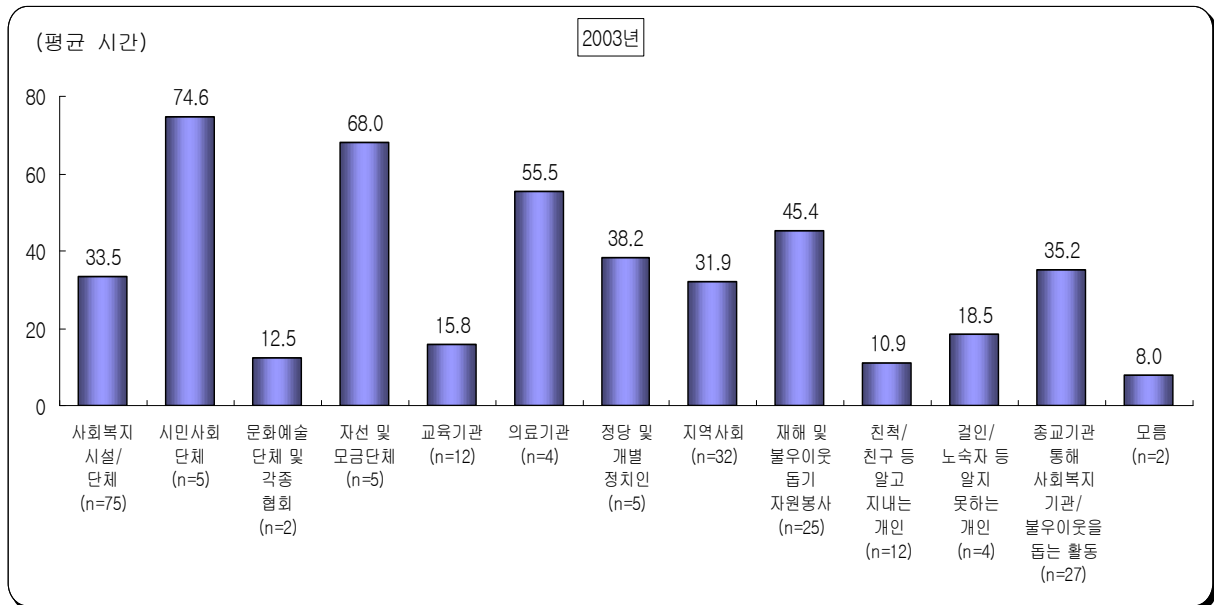
-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개인별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10~19시간'이 17.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00시간 이상'(13.9%), '20~29시간'(13.6%), '10~19시간'(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자원봉사활동 시간(개인별)

- ◎ 자원봉사처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설/ 단체'(n=75) 33.5시간, '지역사회'(n=32) 31.9시간, '재해 및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n=25) 45.4시간, '종교기관을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n=27) 35.2시간 등으로 나타남.

- 여타 봉사처의 경우 표본수가 10미만으로 상당히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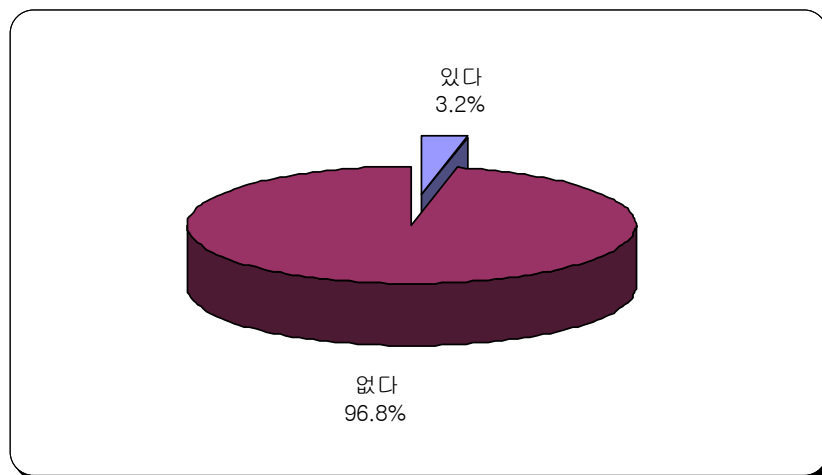


<그림> 자원봉사처별 활동시간

1-5. 2003년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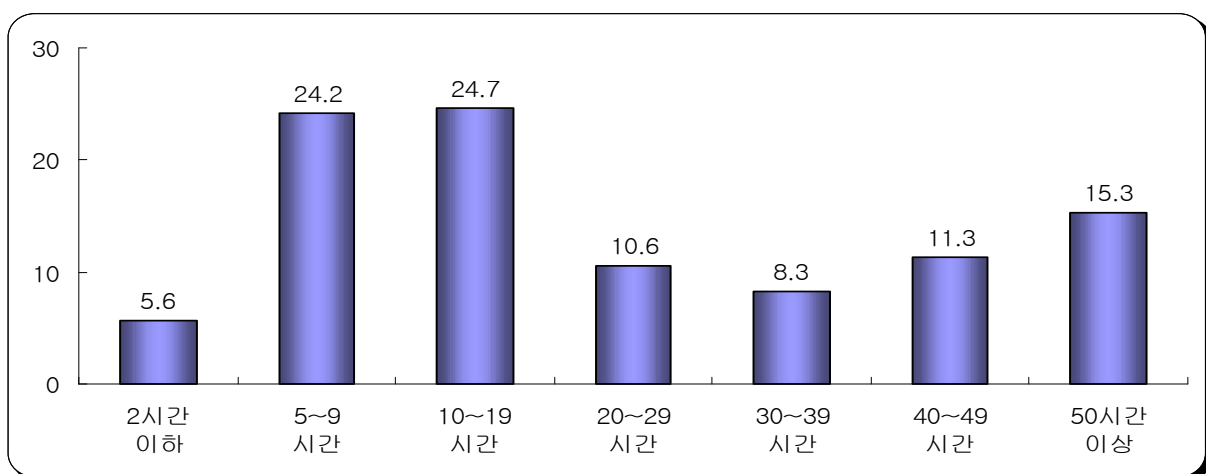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0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 ◎ 2003년에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1,011명 중 3.2%로 나타남.



<그림>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 ◎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33명에 한정하여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10~19시간’(24.7%)과 ‘5~9시간’(24.2%)이 높게 나타남(n=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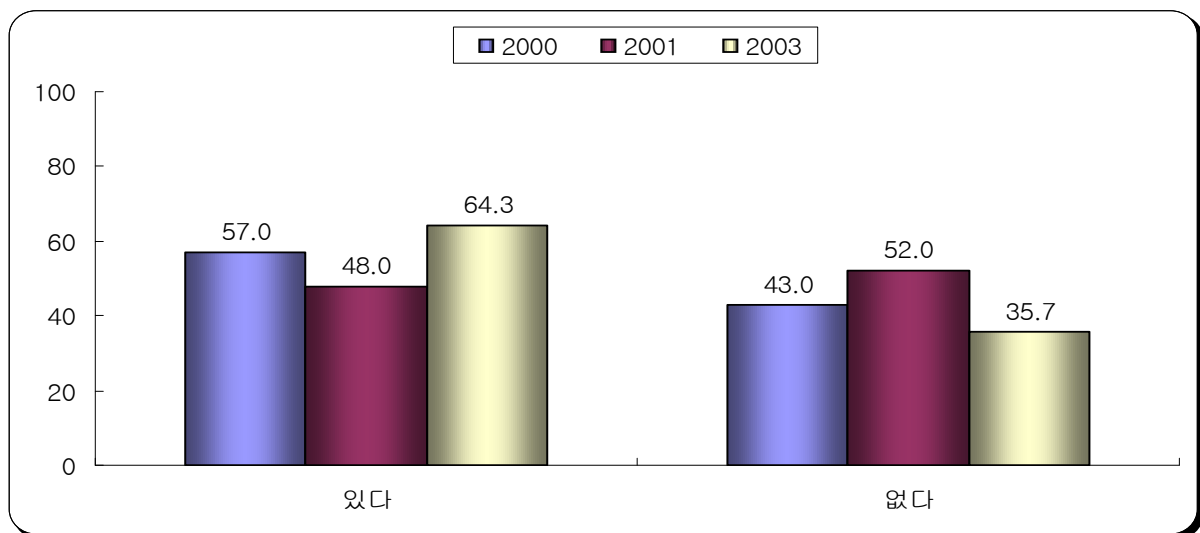
<그림>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시간

2. 2003년 기부 참여 여부

문)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3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2와 같은 곳에서] ‘기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걸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 2003년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있다’는 응답이 64.3%로 나타남.

- 이는 2000년(57.0%)과 2001년(48.0%) 조사에 비해 각각 7.3%포인트 및 16.3%포인트가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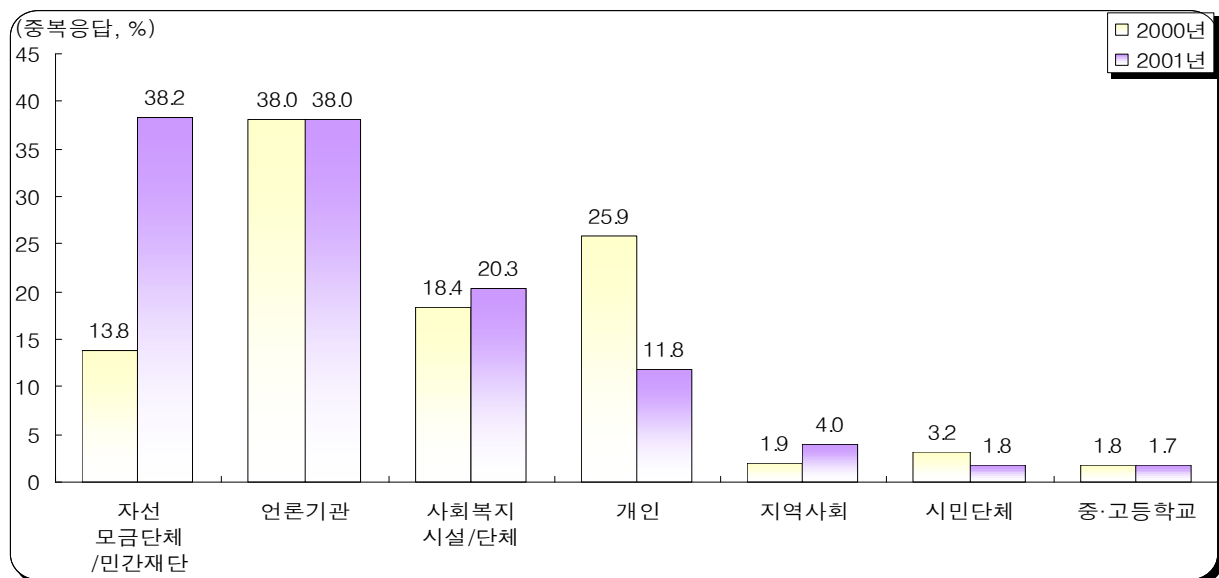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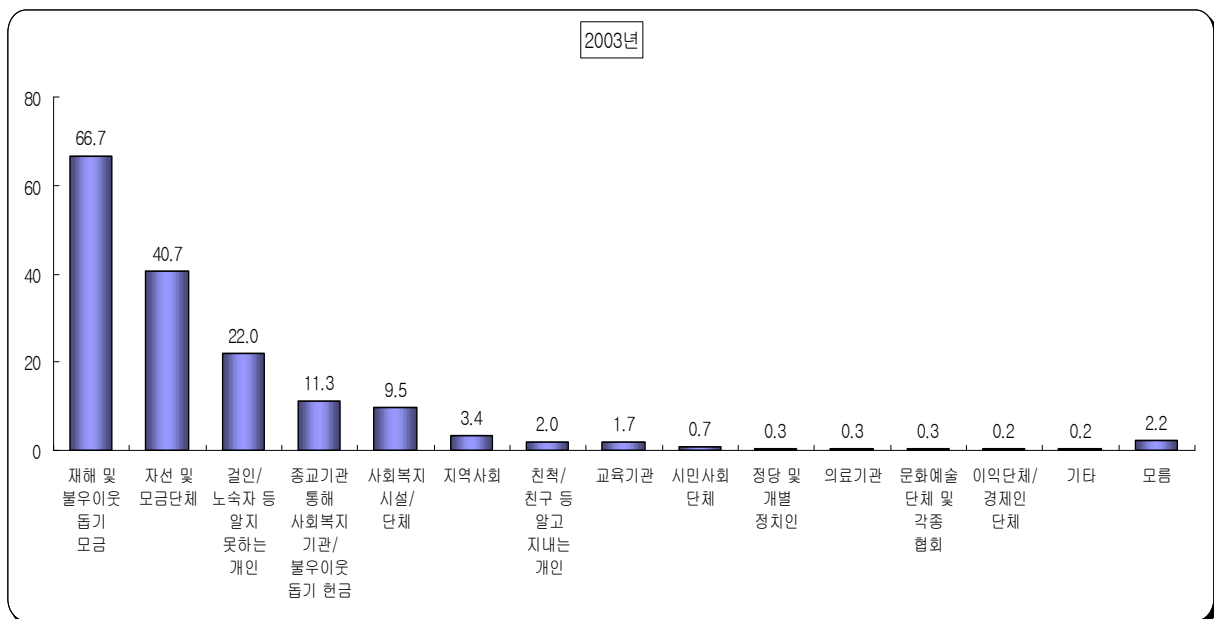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있다’는 응답은 30대(73.5%) 및 40대(70.1%), 고졸 학력층(71.5%), 자영업자(75.3%), 주부(74.4%), 인천/경기 거주자(76.4%), 중소도시 거주자(69.3%), 결혼상태 기혼(73.7%), 기독교(70.9%) 및 천주교(77.8%) 신자, 개인소득 200만원이상(72.1%), 가구소득 300만원이상(73.6%), 거주형태 자가(6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없다’는 응답은 20대(47.2%), 중졸이하(42.9%) 및 대재이상(40.4%) 학력층, 농/임/어업 종사자(49.1%), 학생(51.2%), 부산/울산/경남(49.5%), 광주/전라(46.2%), 강원(67.1%), 읍/면 지역 거주자(54.5%), 결혼상태 미혼(45.8%) 및 이혼/사별(68.8%), 무신론자(42.3%), 개인소득 50~99만원(46.0%), 가구소득 99만원이하(6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2-1. 2003년 기부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3년 1월~12월) ‘기부 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보기카드 2에서 찾아] 모두 말씀해주시요.

- ◎ 기부 참여자 650명이 기부한 곳으로는 ‘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이 66.7%로 가장 높았고, ‘자선 및 모금기관’(40.7%), ‘결인, 노숙자 등 알지 못하는 개인’(2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n=650).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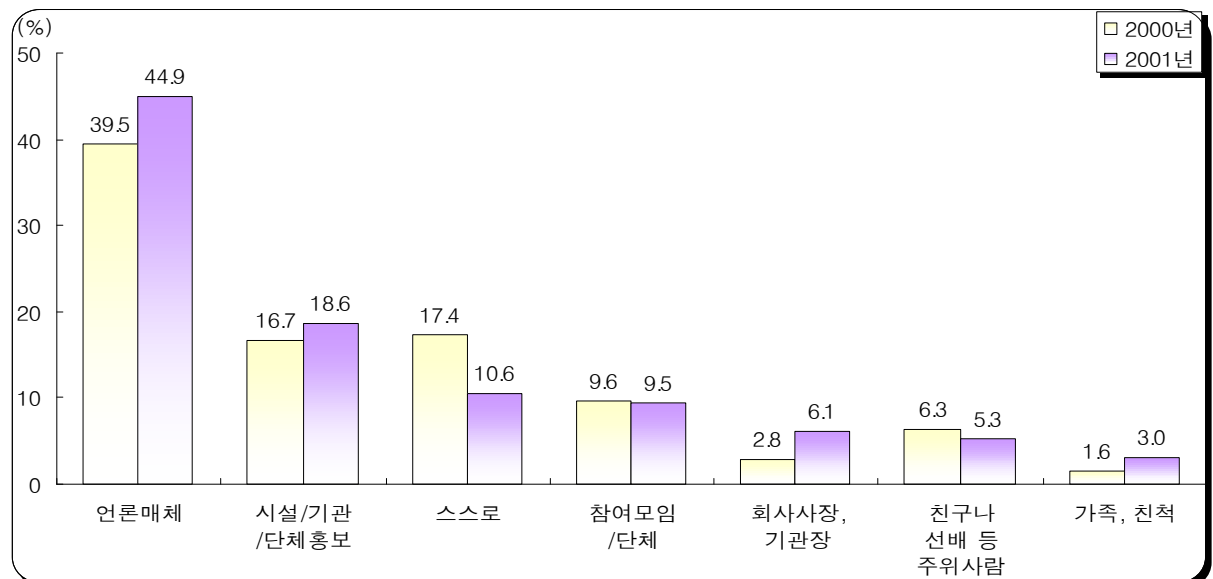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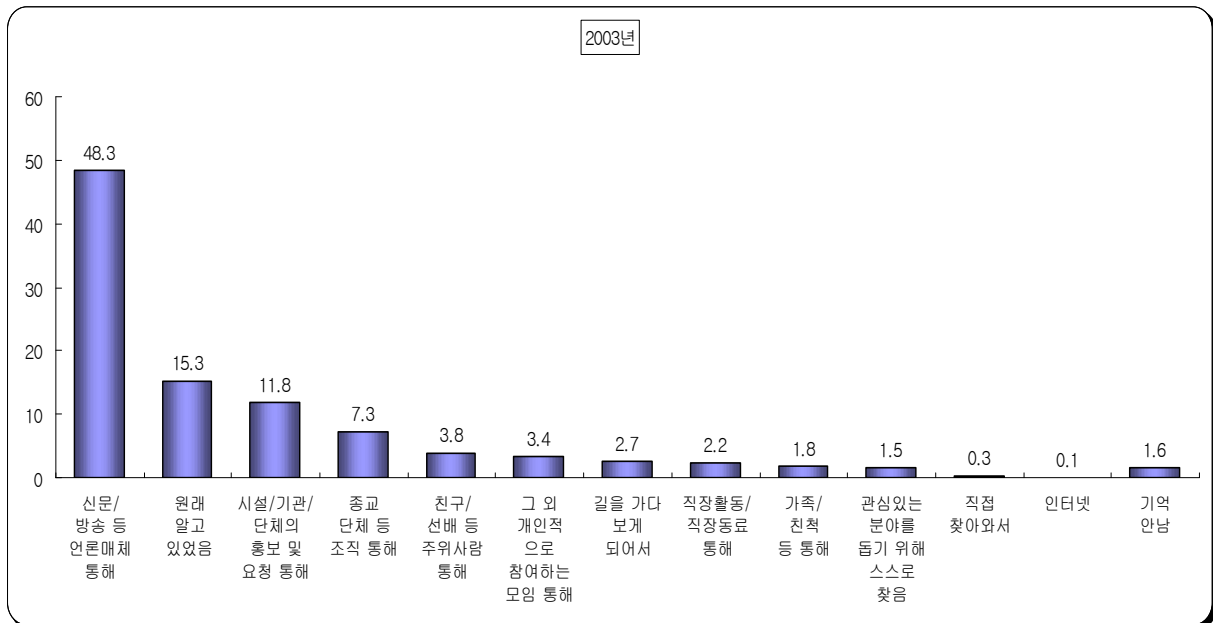
- ▷ ‘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은 고졸 학력층(72.4%), 인천/경기 거주자(78.8%), 개인소득 200만원이상(73.0%), 가구소득 300만원이상(71.6%), 거주형태 전세(7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자선 및 모금기관’은 여자(46.0%), 50대이상 연령층(53.4%), 중졸이하 학력층(55.1%), 주부(53.7%), 서울(50.7%)·대구/경북(68.0%)·광주/전라(58.6%) 거주자, 결혼상태 기혼(46.7%), 개인소득 50~99만원(65.9%), 거주형태 자가(4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2. 2003년 기부처 인지 경로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시요.

- ◎ 기부한 곳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원래 알고 있었다'(15.3%), '시설/기관/ 단체의 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response base; n=1,093).

- 언론매체는 2000년(39.5%)과 2001년(44.9%)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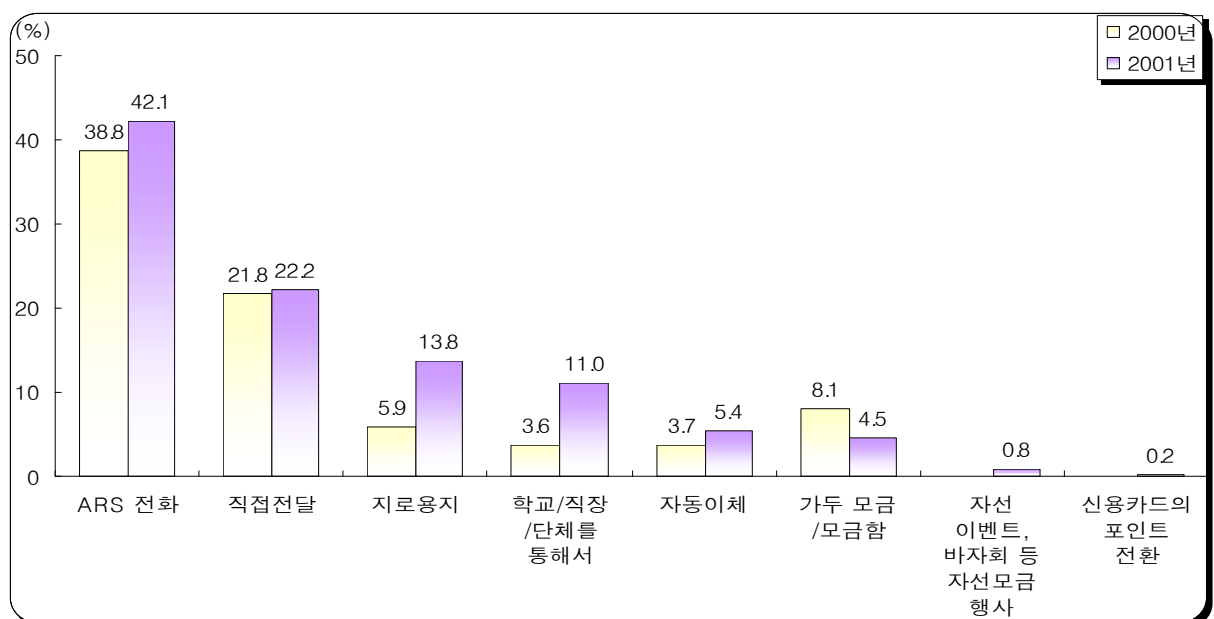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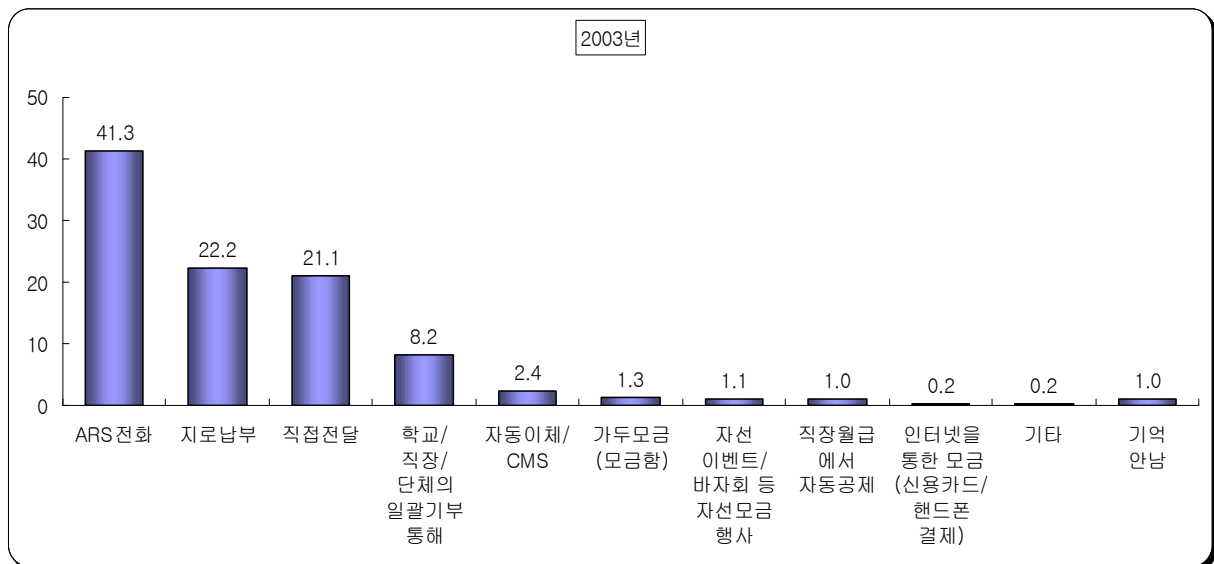


2-3. 2003년 기부 방법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하셨습니까?

◎ 기부 방법에서는 'ARS전화'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response base; n=1,093).

- ARS전화는 2000년(38.8%)과 2001년(42.1%)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의 기부 방법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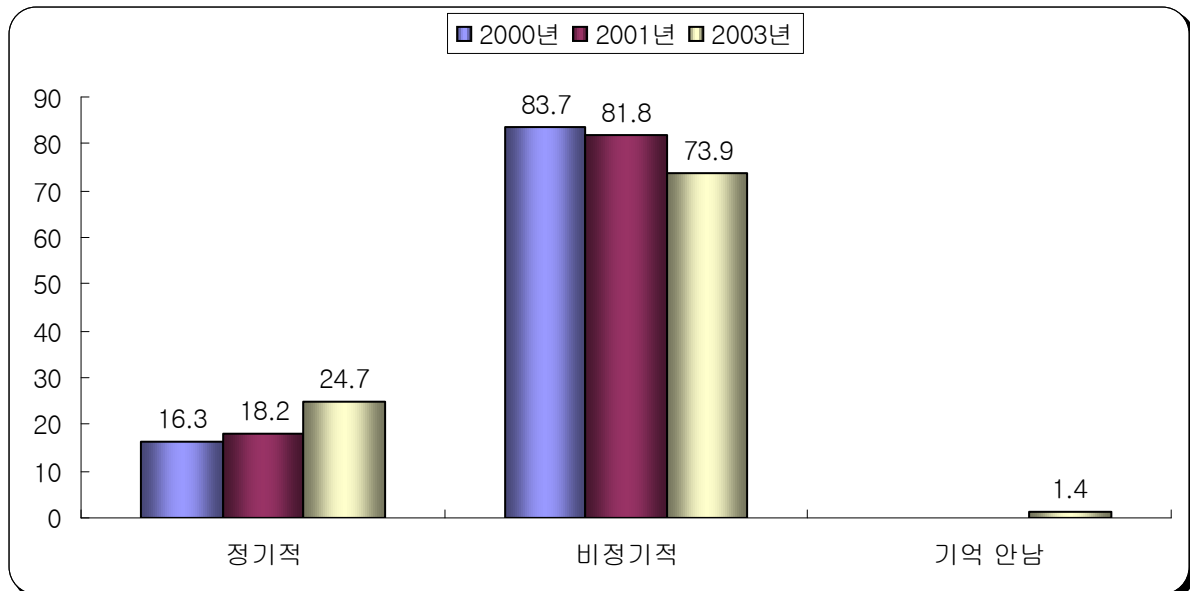


2-4. 2003년 기부 정기성 여부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기부’는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 기부의 정기성 여부에서는 ‘정기적’ 기부가 24.7%로 나타남(response base; n=1,093).

- 2000년 16.3%, 2001년 18.2%로 조금씩 정기적 기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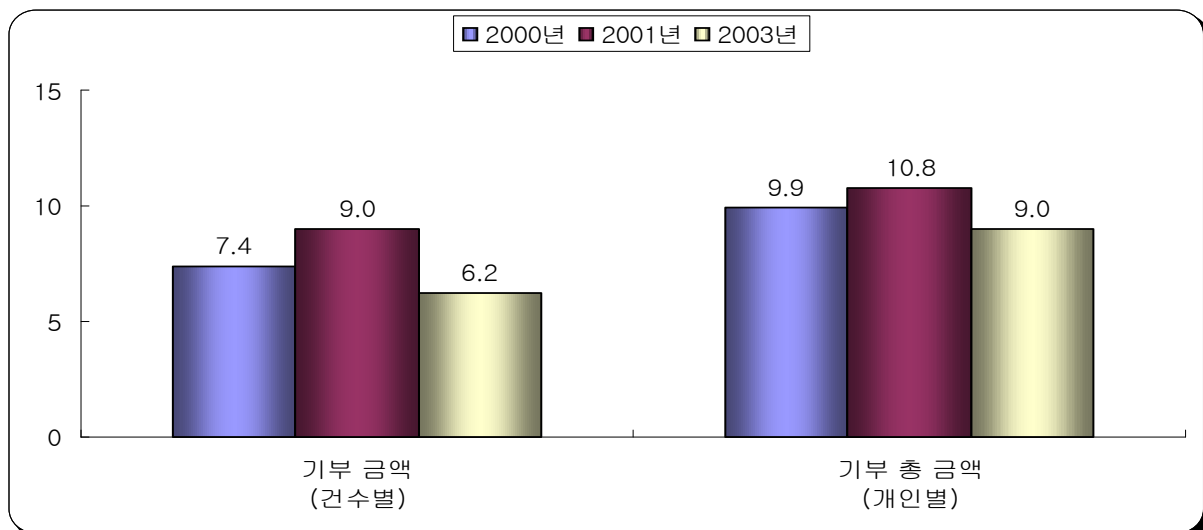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정기적’이라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32.5%), 서울(29.0%) 및 대구/경북(48.5%)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27.2%), 결혼상태 기혼(27.8%), 개인소득 50~99만원(3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87.9%), 대재이상 학력층(79.7%), 학생(89.3%), 인천/경기(81.9%) 및 광주/전라(90.8%) 거주자, 결혼상태 미혼(87.3%)임.

2-5. 2003년 기부 금액

문) 작년 한 해 동안(200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03년 기부 경험자에 한정하여 기부 금액을 살펴보면, ‘건수별 기부 금액’의 평균은 “61,860원”으로 조사됐고, 종교기부를 제외한 ‘개인별 기부 금액’의 평균은 “90,401원”으로 조사됨. 종교적 기부를 포함시키면 250,517원임.
- ‘국민 1인당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평균 기부 금액’은 “57,859원”으로, 2001년 조사의 51,775원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임.
 - 기부 참여가 증가한 반면 기부 경험자의 기부 금액 평균이 감소한 이유는 기존 조사에 비해 기부에 대해 응답자가 기부행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하도록 한 후 질문하여, 소액 기부자(‘9천원 이하’ 등)가 기부 경험자로 보다 많이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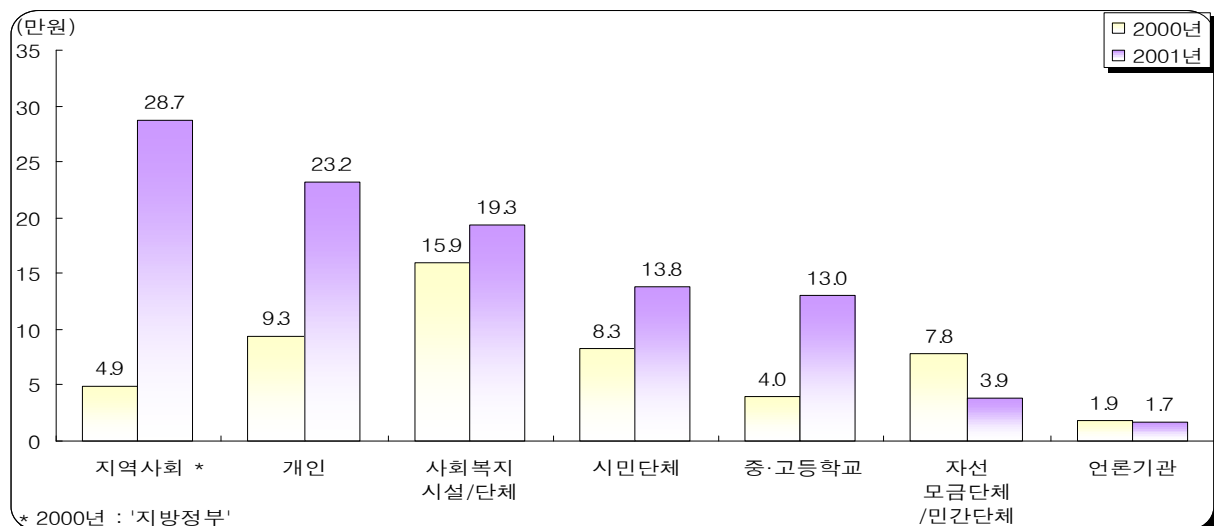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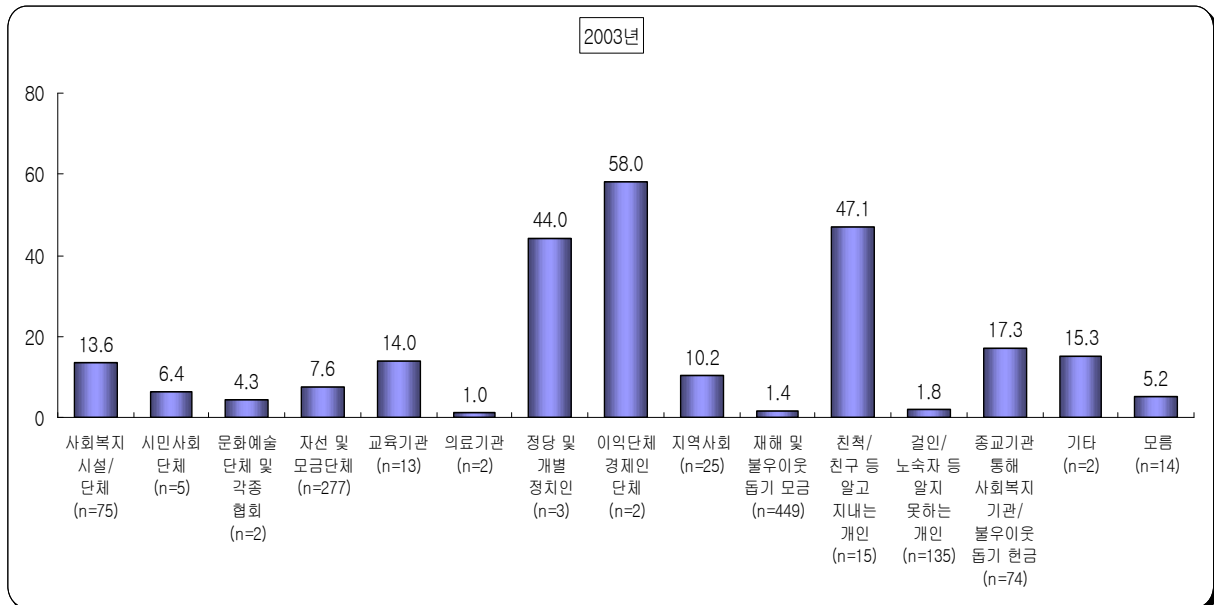
<그림> 기부 금액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개인별’ 기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남자(12만8천원), 40대(19만5천원), 고졸 학력층(11만9천원), 자영업자(32만5천원), 서울 거주자(14만7천원), 대도시 거주자(10만1천원), 결혼상태 기혼(11만1천원), 기독교(19만3천원) 및 천주교(11만2천원) 신자, 개인소득 200만원이상(20만4천원), 가구소득 300만원이상(15만6천원), 거주형태 자가(11만원)임.

- ◎ 기부처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설/ 단체'(n=75) 13만6천원, '자선 및 모금 단체'(n=277) 7만6천원, '지역사회'(n=25) 10만2천원, '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n=449) 1만4천원, '결인, 노숙자 등 알지 못하는 개인'(n=135) 1만8천원, '종교기관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현금'(n=74) 17만3천원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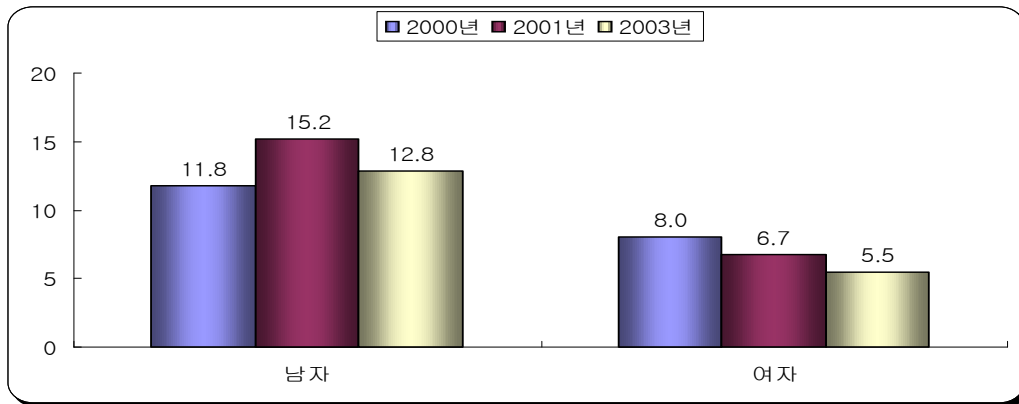
- 여타 기부처는 표본수가 10 내외로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그림> 기부처별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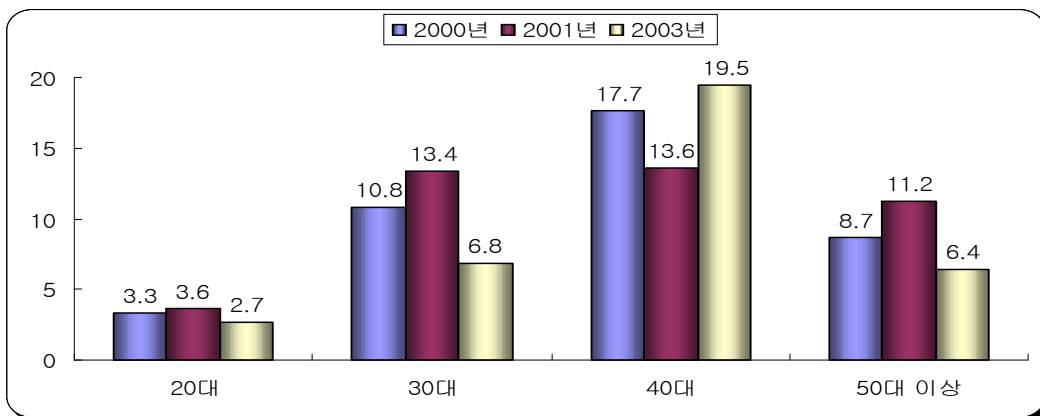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별 기부 금액 세부 비교

◎ 기부 금액을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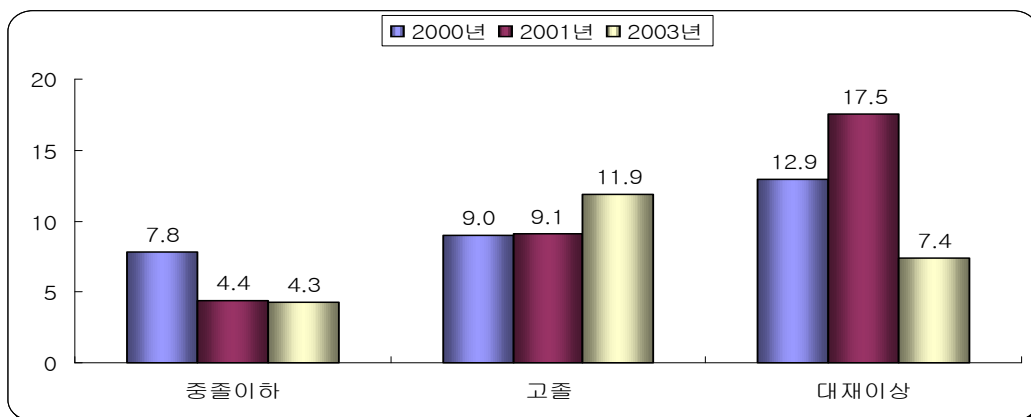
<그림> 성별 기부 금액

◎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눈에 띄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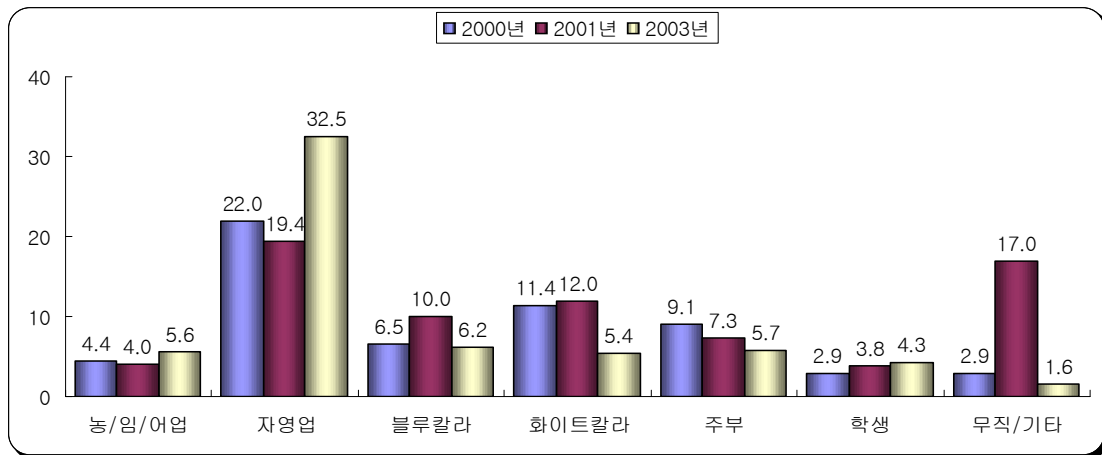
<그림> 연령대별 기부 금액

◎ 학력별로는 기존조사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높았던 것과 달리, 고졸 학력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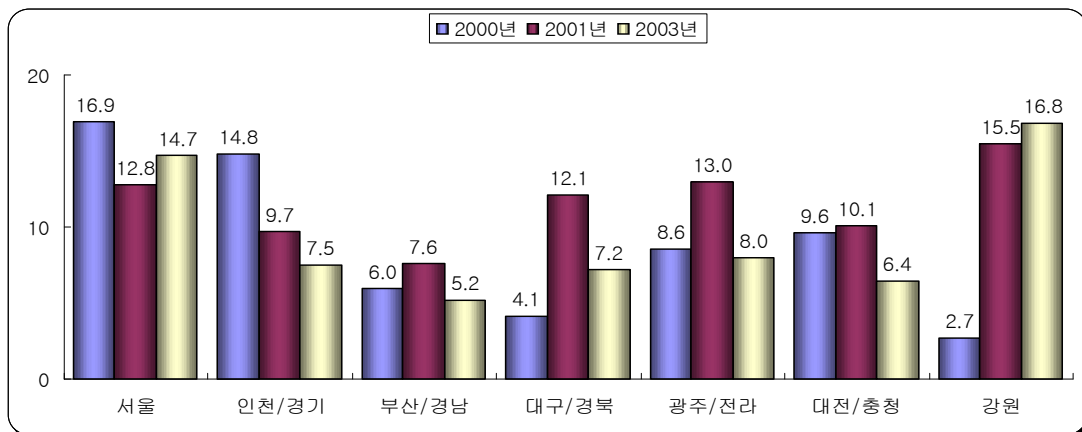
<그림> 학력별 기부 금액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기부 금액이 여타 직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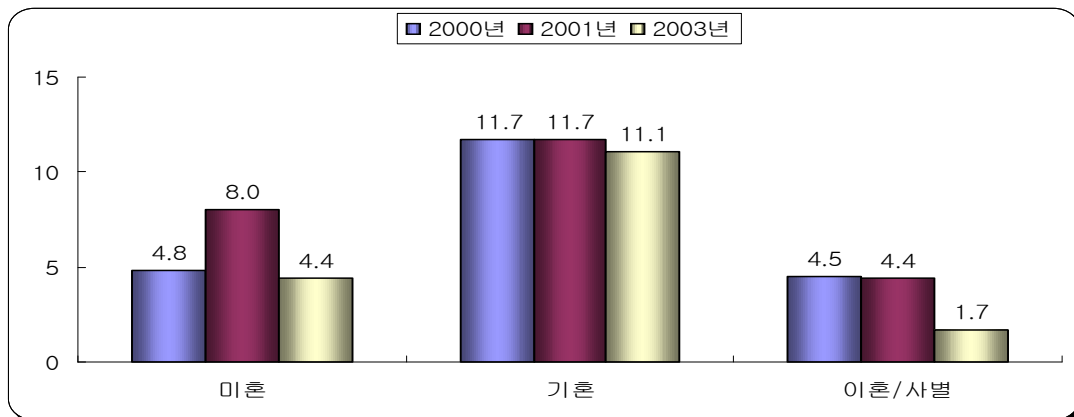
<그림> 직업별 기부 금액

◎ 서울이 여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았음. 강원도의 경우 사례수가 11로 작아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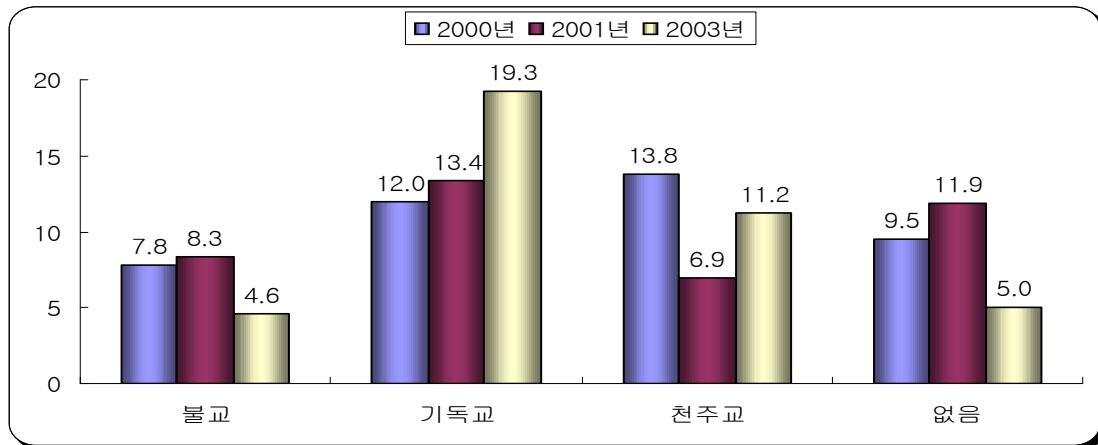
<그림> 지역별 기부 금액

◎ 결혼상태별로는 기혼 > 미혼 > 이혼/사별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결혼상태별 기부 금액

◎ 종교별로는 기독교 > 천주교 > 무교 > 불교의 순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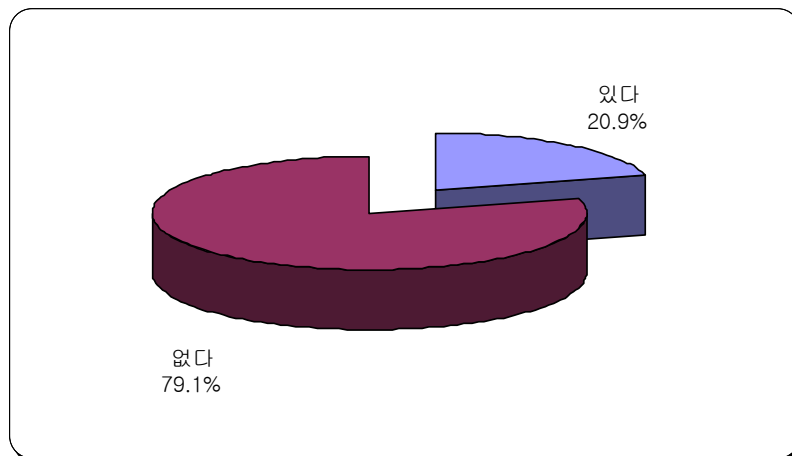


<그림> 종교별 기부 금액

2-6. 2003년 종교기관 기부 참여율 및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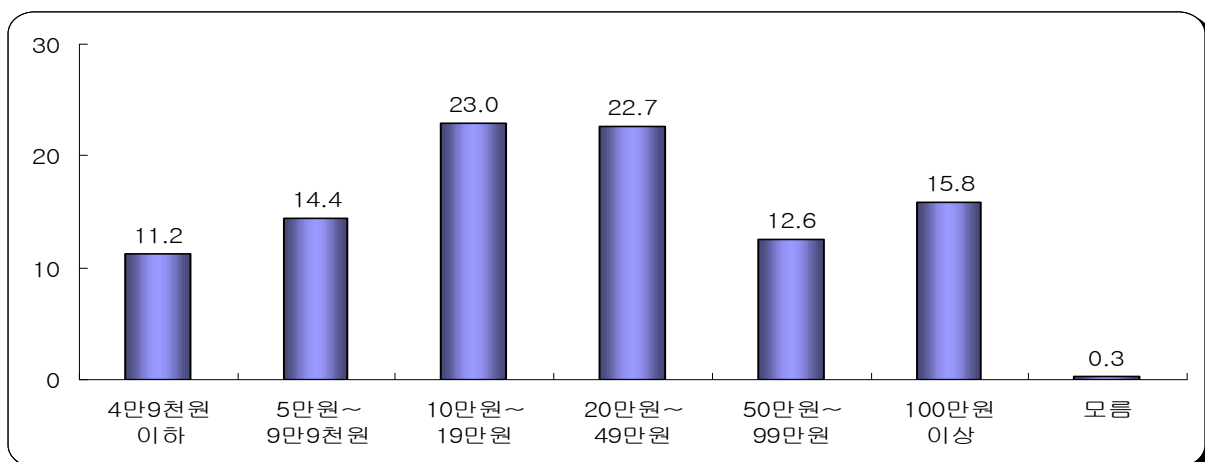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0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03년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기관에 순수현금을 한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 1,011명 중 ‘있다’는 응답이 20.9%로 나타남.



<그림> 종교기관 순수현금 참여율

- ◎ 종교기관에 순수현금을 한 적이 있다는 211명의 현금액 비율은 ‘10~19만원’(23.0%)과 ‘20~49만원’(22.7%)에서 높게 나타남(n=211).
- 한편, 현금을 한 이들의 순수현금 평균 금액은 "57만4천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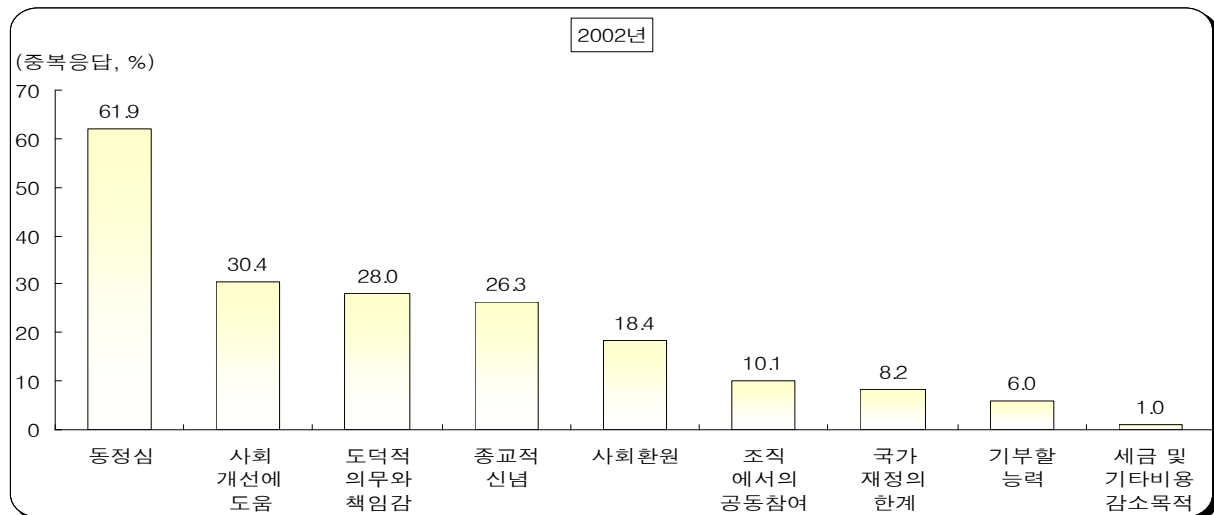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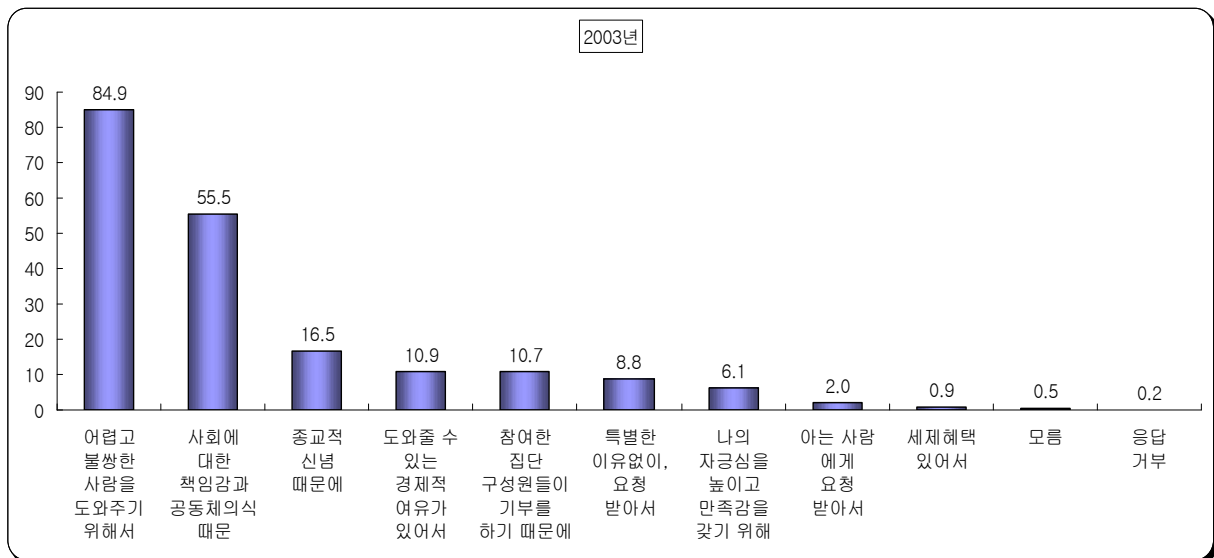


<그림> 종교기관 순수현금액

3. 기부의 이유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 ◎ 2003년 기부 참여자 650명의 기부 이유로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84.9%로 가장 높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때문에’가 55.5%로 두 번째로 높았음(중복응답; n=650).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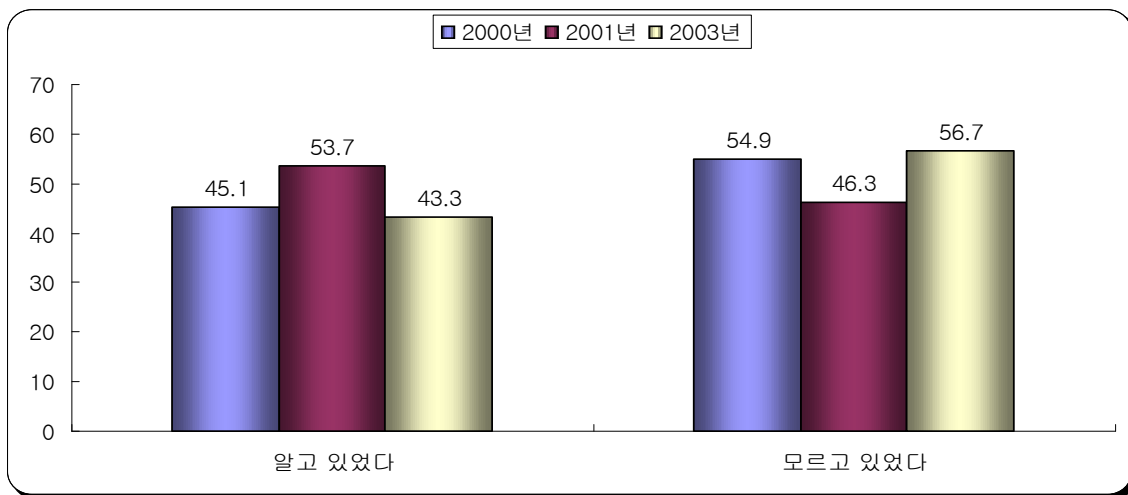
- ▷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4.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문) 귀하는 기부를 하신 돈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그럼, 귀하는 작년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하셨습니까?

- ◎ 기부한 돈의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인지 여부를 묻은 결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3.3%로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56.7%)보다 낮게 나타남(n=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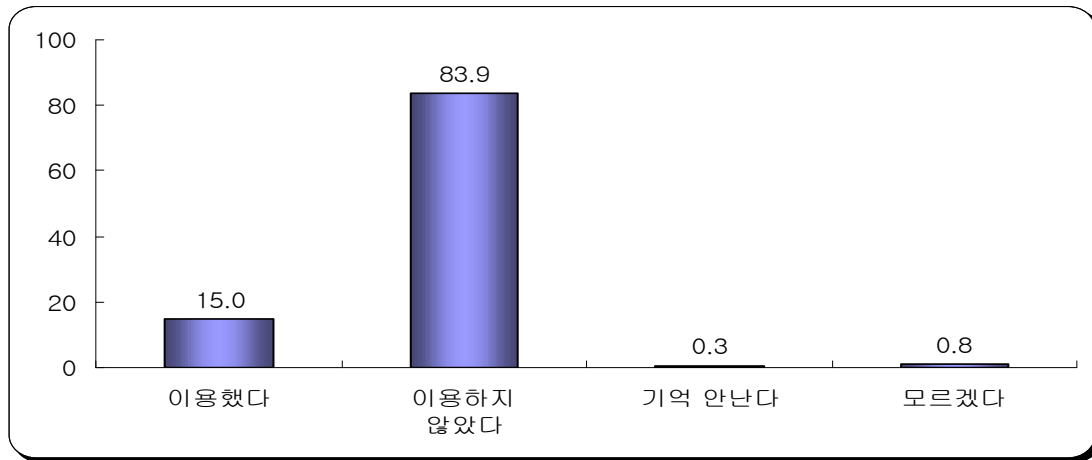


<그림> 세금공제 인지 여부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0대(55.1%), 학력수준이 높을수록(대재이상: 53.0%), 자영업자(55.1%), 블루칼라(60.2%), 광주/전라 거주자(75.0%), 중소도시 거주자(49.5%), 결혼상태 기혼(47.8%), 천주교 신자(55.6%), 개인소득 200만원이상(57.2%), 가구소득 300만원이상(53.1%), 거주형태 자가(4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20대(72.8%), 학력수준이 낮을수록(중졸이하: 64.5%), 농/임/어업 종사자(74.0%), 학생(82.9%), 서울(65.7%) 및 대전/충청(70.1%)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61.5%), 결혼상태 미혼(65.2%), 개인소득 49만원이하(61.4%) 및 50~99만원(73.4%), 가구소득 99만원이하(74.2%) 및 200만원대(65.4%), 거주형태 전세(64.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 중 실제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5.0%로 낮게 나타남(n=282).



<그림> 세금공제 이용 여부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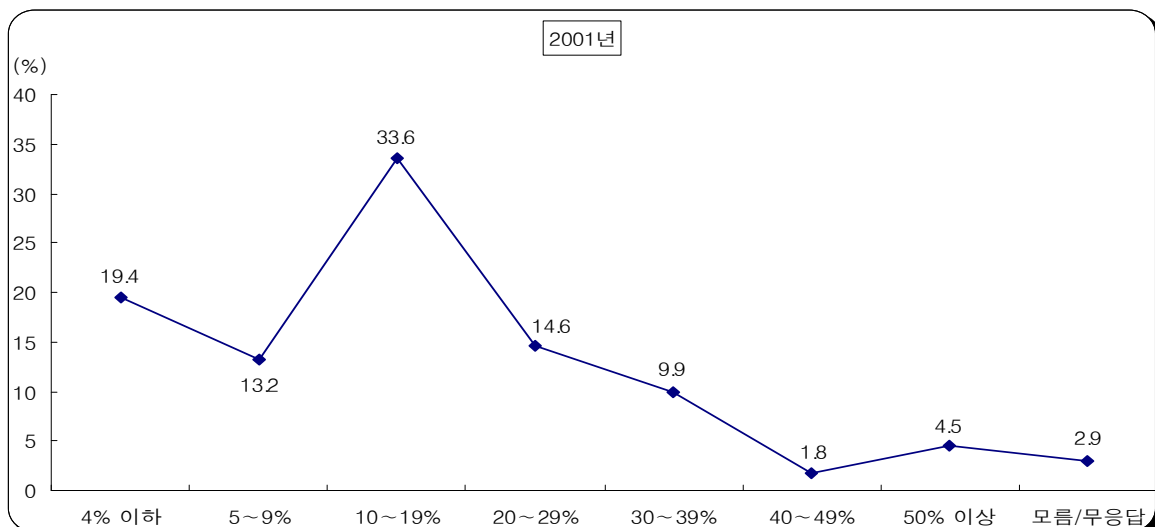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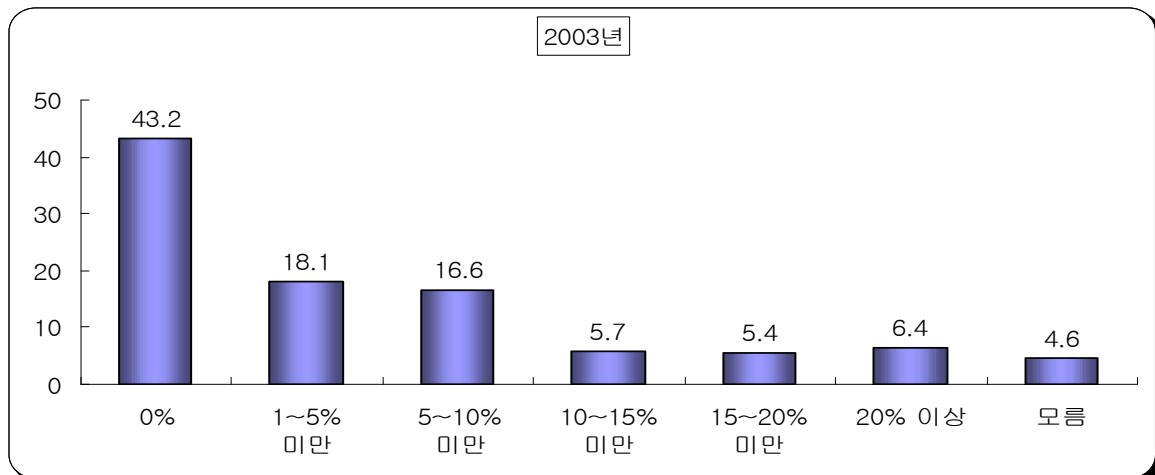
- ▷ '이용했다'는 응답은 40대(21.7%), 블루칼라(28.0%), 결혼상태 기혼(18.7%), 가구 소득 300만원이상(2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100.0%), 중졸이하 학력층(94.0%), 자영업자(94.7%), 결혼상태 미혼(98.2%)임.

5. 기부금의 기부처 운영 및 행정 비용 적정 범위

문) 기부된 돈의 일부는 기부 단체나 기관/시설의 운영 및 행정 비용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기부된 돈의 몇 퍼센트(%) 정도가 운영 및 행정 비용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기부 참여자들은 기부금이 기부 단체·기관·시설의 운영/행정 비용으로 쓰여질 비율에 대해 '전액이 기부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0%)'가 43.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5% 미만'(18.1%), '5~10% 미만'(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n=650).

☞ [참고] 본조사는 객관식(closed-ended)으로 질문한 반면, 2002년 조사에서는 주관식(open-ended)으로 질문하였고, 워딩도 다소 수정됨('허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적어주십시오'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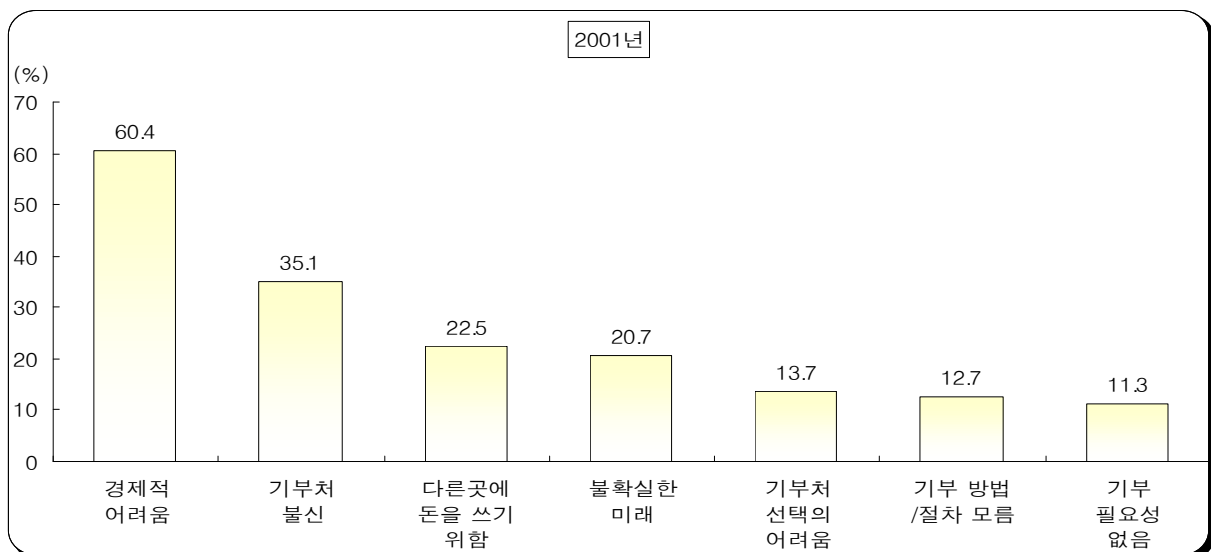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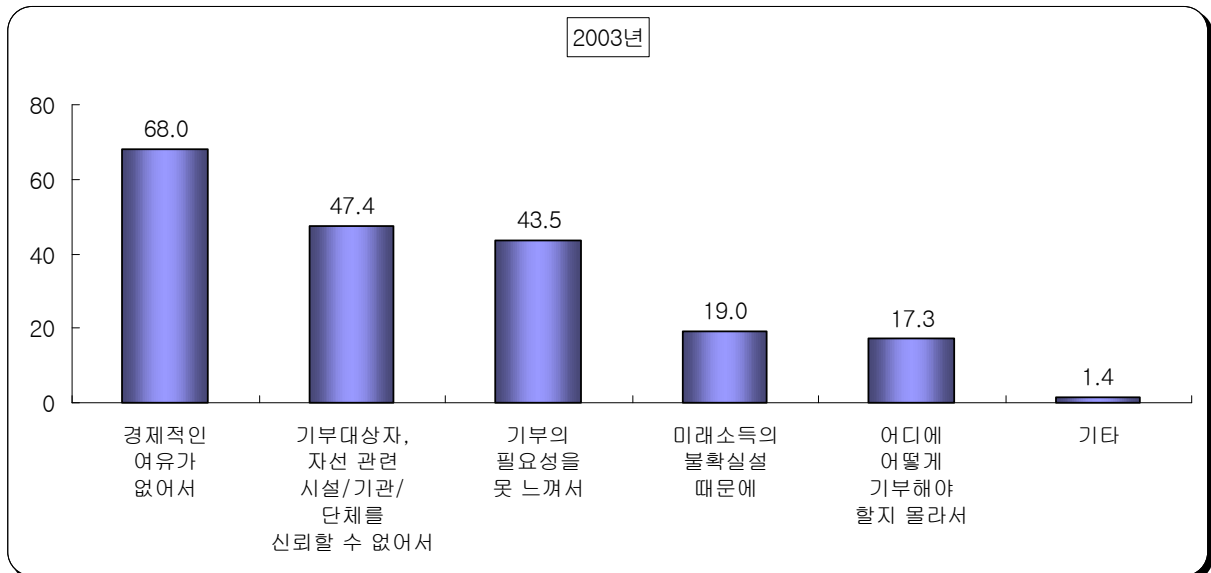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기부한 돈 전액이 기부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중졸이하 학력층(51.5%), 자영업자(54.9%), 화이트칼라(52.2%), 인천/경기(49.7%) · 광주/전라(68.5%) · 대전/충청(66.0%) 거주자, 중소도시 거주자(52.8%), 가구소득 99만원이하(70.1%), 거주형태 전세(53.2%) 및 월세(7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20% 이상’이라는 응답은 결혼상태 이혼/사별(16.5%), 개인소득 50~99만원(13.8%), 가구소득 99만원이하(17.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6. 기부하지 않은 이유(비기부자 한정)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아래에서 골라 주십시오.

- ◎ 2003년에 기부한 적이 없다는 361명에 한정하여 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68.0%로 가장 높았고, ‘기부대상자 및 자선 관련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4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중복응답; n=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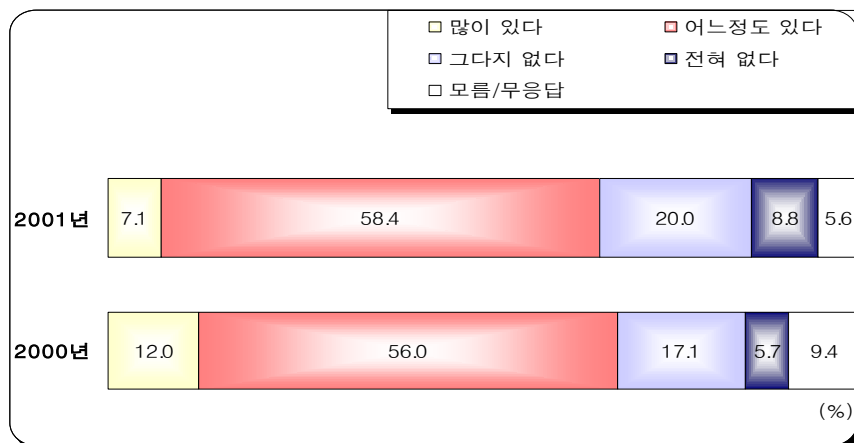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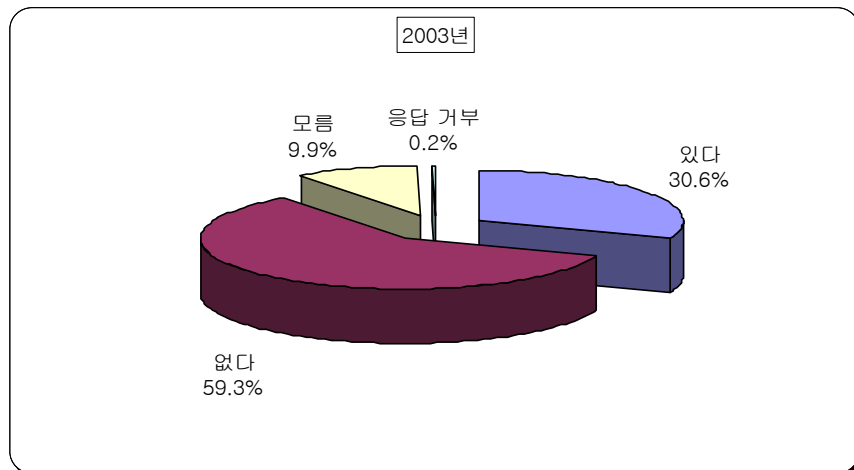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77.7%), 중졸이하 학력층(81.4%), 농/임/어업 종사자(86.1%), 읍/면 지역 거주자(80.5%), 결혼상태 이혼/사별(87.6%), 불교신자(80.3%), 가구소득 99만원이하(8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기부대상자 및 자선 관련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대재이상 학력층(59.2%), 서울 거주자(71.5%), 결혼상태 기혼(55.2%)임.
- ▷ '기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은 블루칼라(65.3%), 광주/전라 거주자(56.8%), 무신론자(50.9%), 개인소득 100만원대(60.8%), 가구소득 100만원대(53.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7.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비기부자 한정)

문)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2003년 기부 비참여자 중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6%에 그침('없다' 59.3% ; n=361).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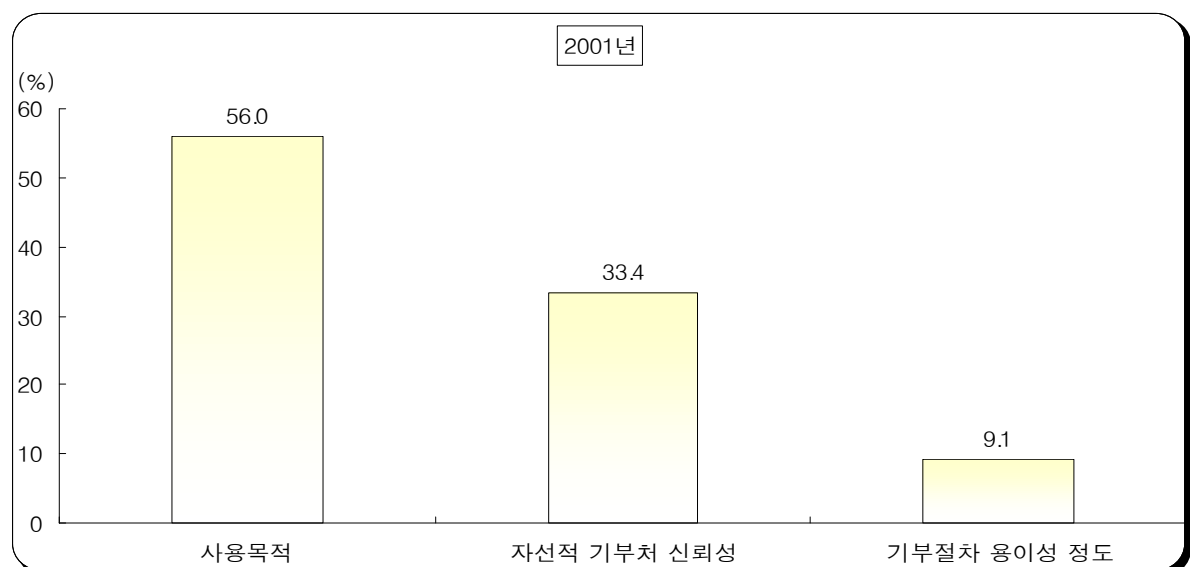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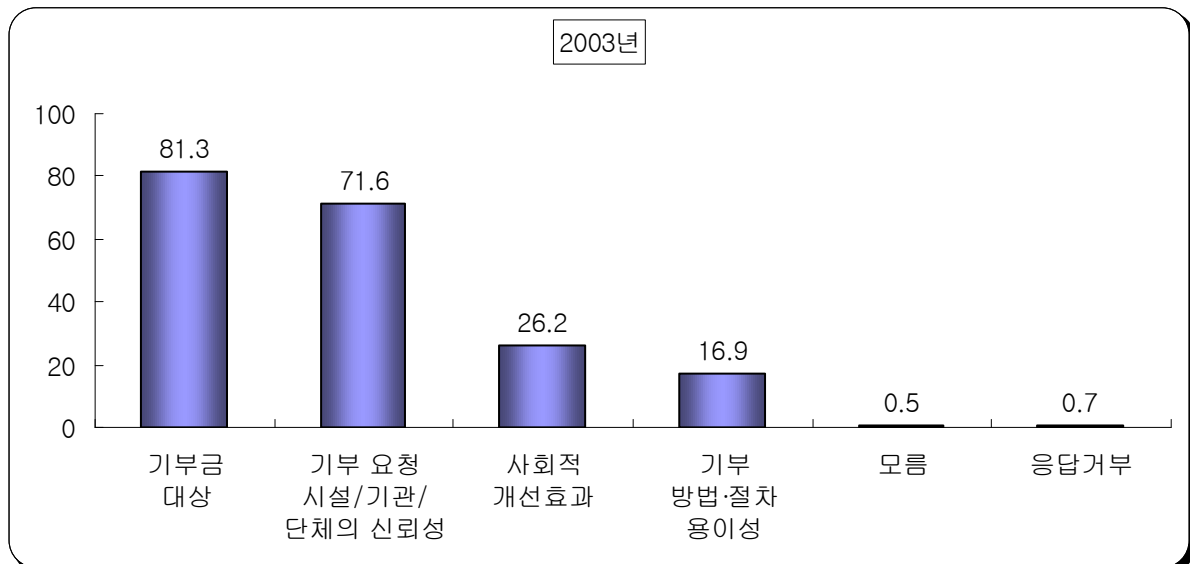
- ▷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41.7%), 고졸 학력층(43.9%), 학생(48.6%), 서울(44.5%) 및 인천/경기(51.4%)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35.8%), 기독교 신자(43.7%), 개인소득 200만원이상(43.3%), 가구소득 200만원대(41.1%) 및 300만원 이상(4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없다'는 응답은 50대이상 연령층(73.8%), 중졸이하 학력층(83.9%), 농/임/어업 종사자(83.8%), 부산/울산/경남(76.1%) 및 광주/전라(76.5%) 거주자, 읍/면 지역 거주자(79.8%), 결혼상태 이혼/사별(72.7%), 가구소득 99만원이하(85.7%) 및 100만원대(79.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8.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참여를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시겠습니까?

- ◎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할 점으로는 '기부금의 대상이 누구인가'(81.3%)가 가장 높았고,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가 믿을 만 한가'(71.6%)가 다음으로 높았음(중복응답).

☞ 본 문항부터 전체 응답자 1,011명에 대한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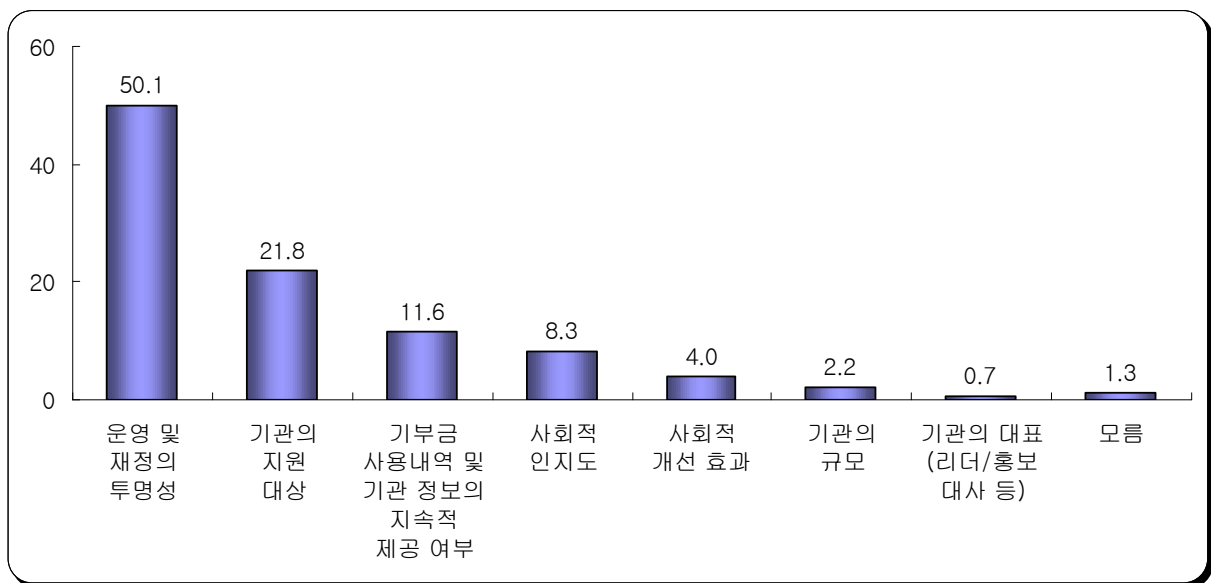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기부금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자영업자(89.9%), 대구/경북 거주자(95.3%), 개인 소득 200만원이상(8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가 믿을 만 한가’는 여자(74.5%), 50대이상 연령층(77.5%), 고졸 학력층(75.4%), 블루칼라(77.8%), 서울(77.0%) · 인천/경기(77.0%) · 대구/경북(79.9%)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76.1%), 기독교 신자(76.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9. 자선/모금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자선기관이나 모금기관을 통해 기부하신다면, 다음 중 기관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

- ◎ 자선기관 또는 모금기관을 통해 기부할 경우, 가장 많이 고려할 기관의 특성으로는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이 있는 기관인가' 여부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0.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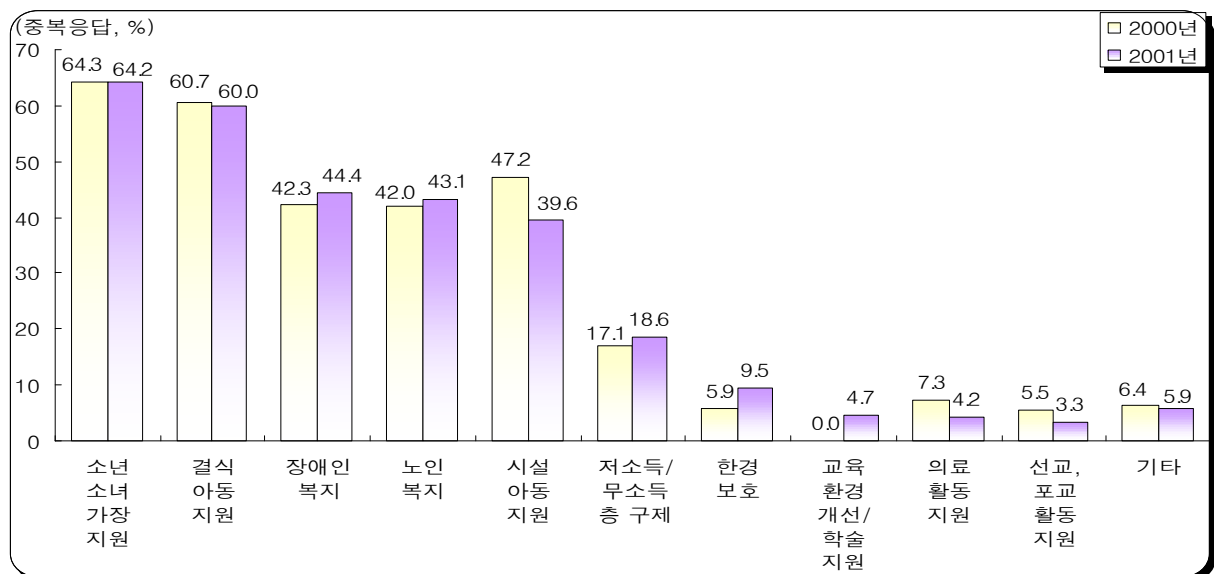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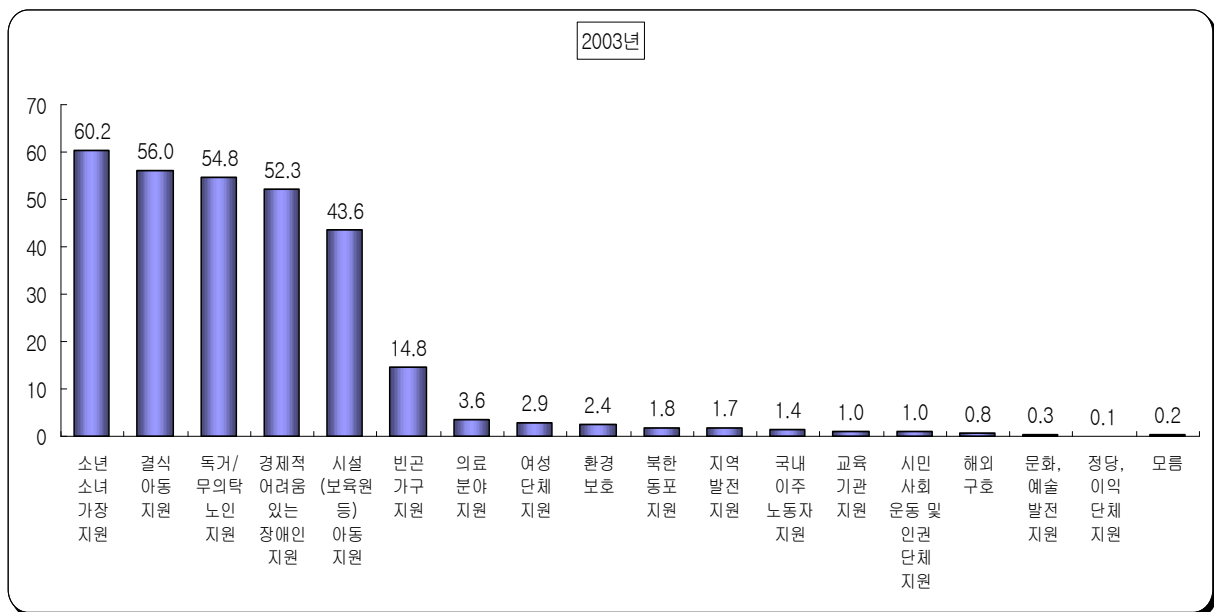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이 있는 기관인가'라는 응답은 대도시 거주자(54.0%), 결혼상태 이혼/사별(63.6%), 개인소득 200만원이상(59.6%), 가구소득 300만원이상(55.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0.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기부금 사용 희망분야로는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 60.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결식 아동 지원'(56.0%), '독거 및 무의탁 노인 지원'(54.8%),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지원'(52.3%) 등의 순으로 나타남(3가지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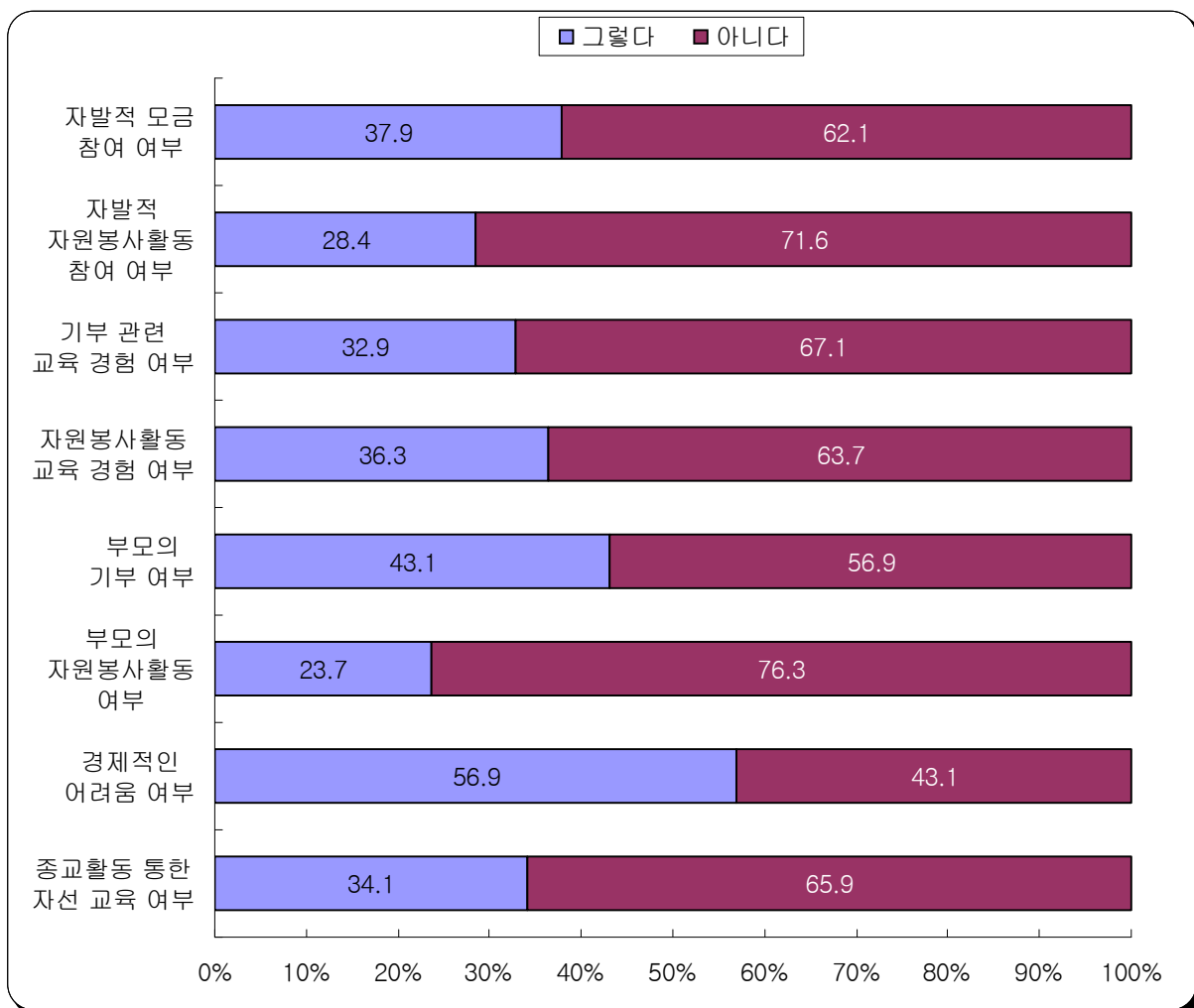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 ‘소년소녀 가장 지원’은 서울 거주자(68.2%), 대도시 거주자(63.4%), 가구소득 300만원이상(6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결식 아동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63.2%), 서울(67.4%) 및 대전/충청(65.8%) 거주자, 대도시 거주자(62.2%), 가구소득 300만원이상(60.7%), 거주형태 전세(62.3%)임.
- ▷ ‘독거 및 무의탁 노인 지원’은 50대이상 연령층(66.7%), 중졸이하 학력층(63.7%), 자영업자(70.2%), 부산/울산/경남 거주자(68.5%), 읍/면 지역 거주자(65.9%), 결혼상태 기혼(58.1%) 및 이혼/사별(69.8%), 불교신자(61.3%), 가구소득 99만원이하(68.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장애인 지원’은 50대이상 연령층(57.2%), 화이트칼라(61.2%), 강원 거주자(74.2%), 중소도시 거주자(58.1%), 개인소득 100만원대(59.7%), 거주형태 전세(58.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1. 성장기 경험

문) 귀하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와 ‘아니다’ 중 선택해주시요.

- ◎ 인구사회적 특성의 성격을 갖는 본 문항에서 ‘경제적 어려움 경험’(56.9%)은 여타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28.4%)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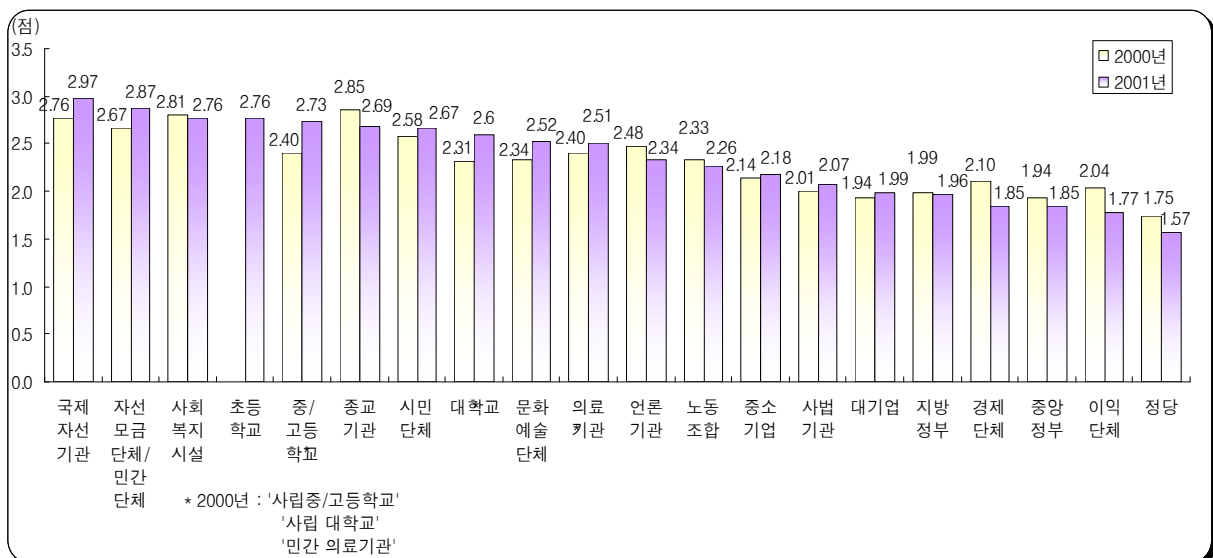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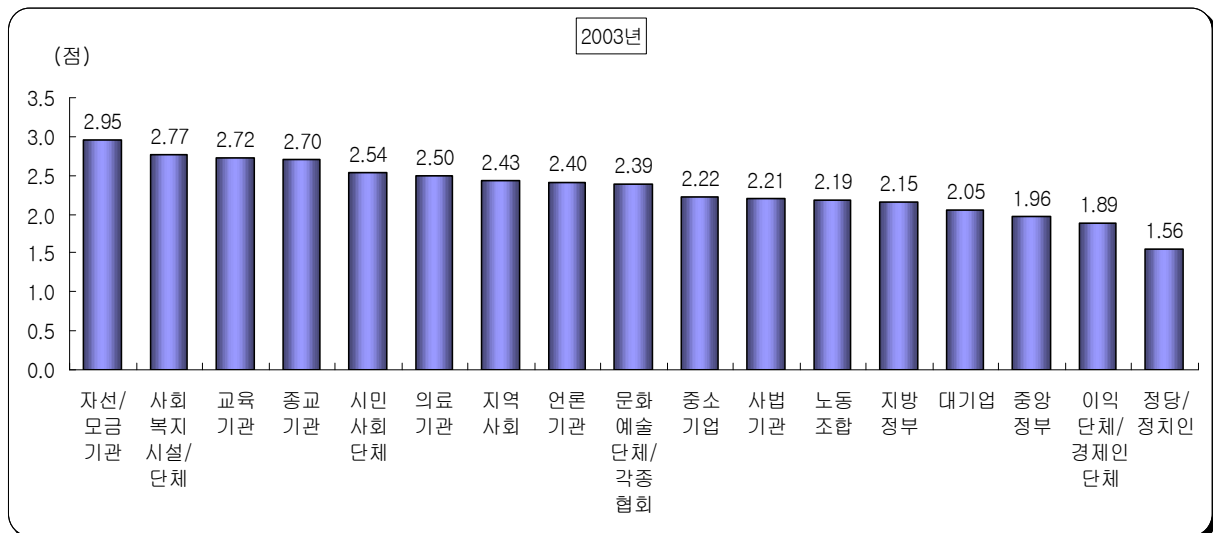


12. 시설/기관/단체별 신뢰도

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 시설/기관/단체별 신뢰도를 물은 결과, '자선 및 모금기관'이 4점 만점 중 2.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사회복지 시설/단체'(2.77점), '교육기관'(2.72점), '종교기관'(2.7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점 만점 점수환산은 응답자의 응답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면 1점,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면 2점, "신뢰하는 편이다"면 3점, "매우 신뢰한다"면 4점으로 전환한 후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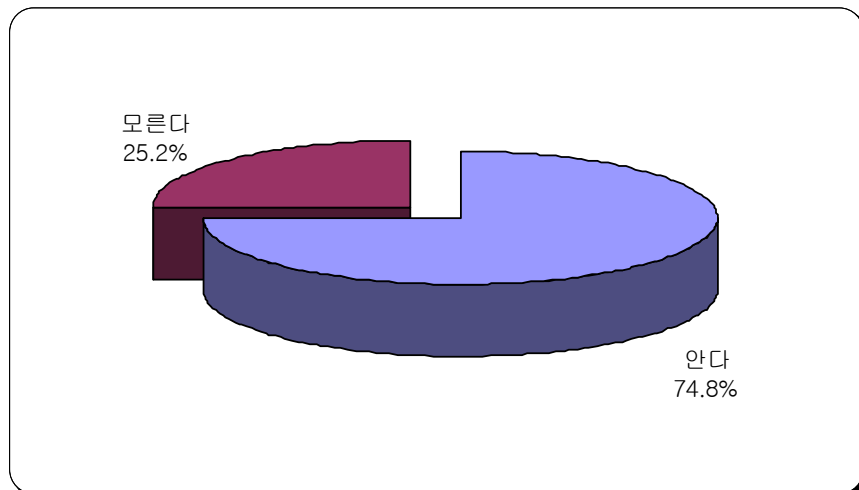


13. 2003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문)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 작년 한 해(2003년 1월~12월) [보기카드 1의 '1번~14번'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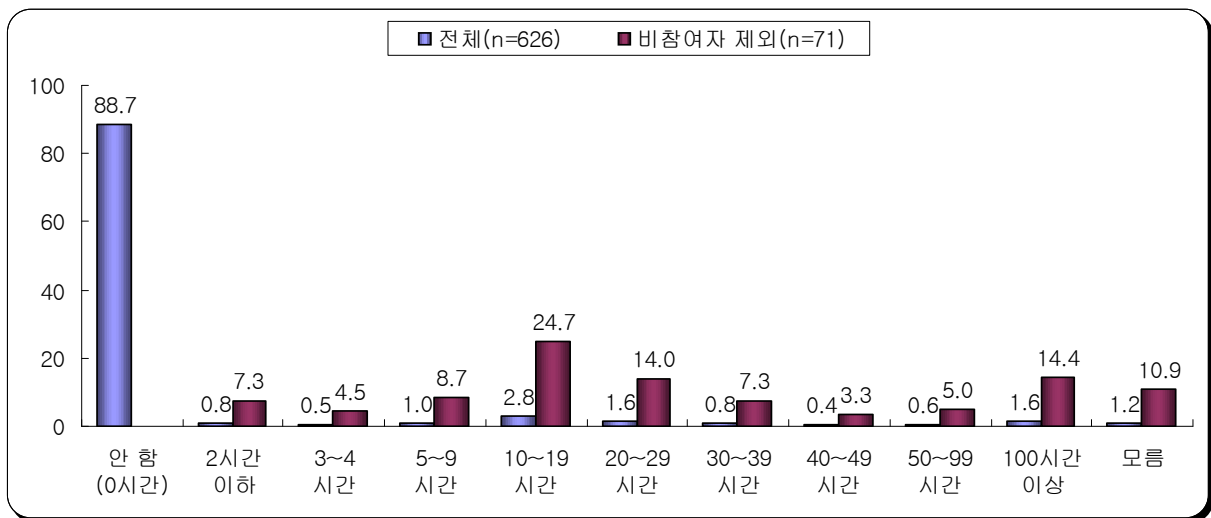
문)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는 작년 한 해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기카드 1]에서 '15번 종교기관(교회/성당/절 등)을 위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말씀해주시오.

- ◎ 기혼인 응답자 626명의 2003년 배우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인지율은 74.8%로 나타남(n=626).



<그림>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지 여부

- ◎ 626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3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 11.3%(71명)이었음(참여 안 함 : 88.7%).
- ◎ 참여한 경우 '10~19시간'(24.7%)이 가장 높았고, '100시간 이상'(14.4%), '20~29시간'(14.0%)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
- ◎ 한편, 배우자 전체의 평균(n=626)은 "4.96시간"으로,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n=71)은 "48.43시간"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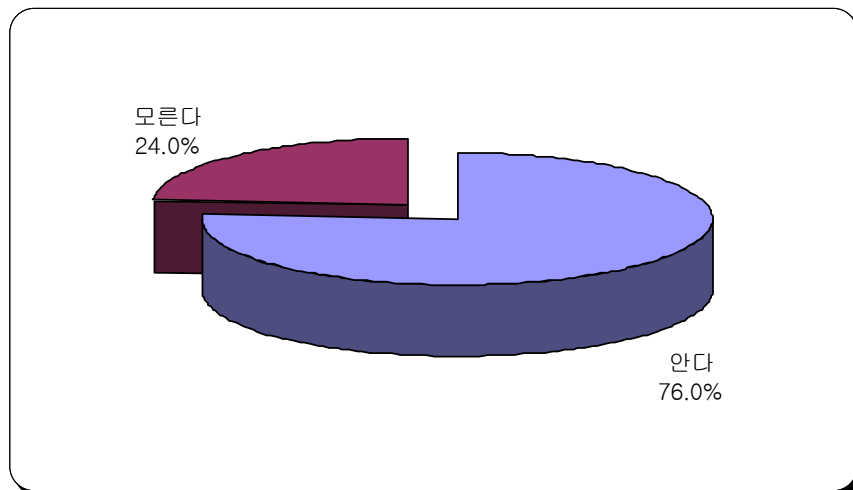
<그림>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14. 2003년 배우자 기부 금액

문)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 작년 한 해(2003년 1월~12월) [보기카드 2의 '1번~14번'과 같은 곳에서]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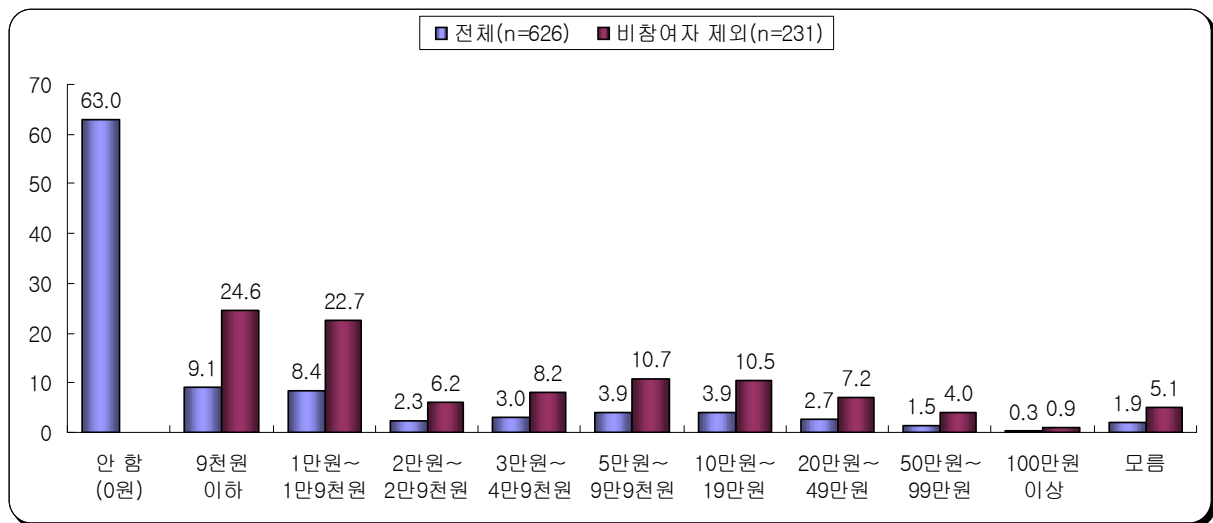
문)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는 작년 한 해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습니다?
[보기카드 2]에서 '15번 종교기관(교회/성당/절 등)을 위한 순수헌금'은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말씀해주시요.

- 기혼인 응답자의 2003년 배우자의 기부 금액에 대한 인지율은 76.0%였음 (n=626).



<그림> 배우자 기부 금액 인지 여부

- ◎ 626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3년 기부에 참여한 비율 37.0%(231명)이었음 (참여 안 함 : 63.0%).
- ◎ 참여한 경우 '9천원 이하'(24.6%)가 가장 높았고, '1만원~1만9천원'(22.7%)이 두 번째로 높았음.
- ◎ 한편, 배우자 전체의 평균(n=626)은 "3만1천원"으로,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n=231)은 "8만7천원"으로 나타남.



<그림> 배우자 기부 금액